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정기학술대회

기후변화와 젠더 도전과 대응

2024.12.13.(금)
13:00~17:00

숙명여자대학교 진리관 B101 중강당

학술대회 후원계좌

신한은행 140-001-328191(숙명여자대학교)

※홈페이지 QR을 통해 후원 안내를 확인해 주십시오.

숙명여자대학교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RESEARCH INSTITUTE OF ASIAN WOMEN

김성은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원장

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원장 김성은입니다.

아시아여성연구원의 2024년 정기 학술대회를 위해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아시아여성연구원은 매년 여성의 삶과 다문화와 관련한 새로운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후변화와 젠더'를 주제로, 기후변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과 성평등 관점에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의 성별 영향 분석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평등을 함께 추구하는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기학술대회는 크게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기후변화와 젠더 불평등에 대한 기원과 논의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기후변화와 젠더에 대한 도전과 대응방안으로 실천적 사례와 발전방향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저희 정기학술대회 주제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 전문가, 학생 모두가 모인 자리인 만큼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연구원의 학술대회 개최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숙명여자대학교 문시연 총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본 학술대회를 열심히 준비해온 연구원님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젠더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어주신 연구자와 전문가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에서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시연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12월의 겨울, 숙명여자대학교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숙명여자대학교는 1906년 대한제국 황실이 '국가와 민족, 인류 발전에 기여'한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창의와 자주의 정신을 갖춘 여성 지도자를 양성해오고 있습니다. '정숙, 현명, 정대'를 교훈으로 삼아 118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여성 인재를 배출하였고, 이제는 실천적 지성의 장이자 여성 교육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숙명의 이러한 이념을 구현하고자 아시아여성연구원은 젠더와 다문화를 주요 주제로 삼아 다양한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960년 9월 설립 이래 아시아여성연구원은 여성의 삶과 다문화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정기학술대회는 현대 사회에서 젠더와 다문화와 관련된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논의의 장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은 '기후변화와 젠더'를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세계 각국이 이상기후의 현실을 체감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한국의 여름 역시 그 어느 때보다 무더웠습니다. 기후변화는 단지 자연환경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과 사회적 불평등, 특히 다양한 취약계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문제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기후위기가 성별에 따라 각기 다르게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 대응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연구가 한데 모여 우리 사회가 더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 수고해주신 아시아여성연구원의 김성은 원장님과 모든 교수님들, 그리고 아시아여성연구원을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 뜻깊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2024.12.13(금) 13:00~17:00 숙명여자대학교 진리관 B101 중강당

시간	프로그램		
13:00~13:30	등 록		
	개 회 식		
13:30~13:50	사 회 자	정영주 ·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간사	
	개 회 사	김성은 ·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원장	
	환 영 사	문시연 ·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세션 1】 기후변화와 젠더불평등		좌장	신경아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3:50~14:10	성인지적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탐색	발표	장윤선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4:10~14:30	에코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기후위기와 젠더 불평등의 기원 : 커먼즈에 대하여	발표	박혜영 · 인하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14:30~14:50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우화』에 나타난 기후위기와 젠더, 돌봄의 미래	발표	김경옥 · 숙명여자대학교 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14:50~15:20	토론	서연화 · 여성환경연대 기후정의팀 팀장	
		송다영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현재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	
15:20~15:30	휴식		
【세션 2】 기후변화와 젠더에 대한 도전과 대응방안		좌장	송아영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5:30~15:50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의 젠더 주류화와 심화 방향성	발표	오채운 ·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15:50~16:10	에코페미니즘으로 본 여성들의 기후위기대응 실천사례와 함의	발표	이안소영 ·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16:10~16:30	다종 간 관계성에 기반한 여성주의 생태시민성의 모색	발표	김효정 ·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전임연구원
16:30~17:00	토론	안영환 ·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	
		이정필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이상은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폐 회 식		

목 차

세션 1
기후변화와 젠더불평등

성인지적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탐색 9
발표 : 장윤선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에코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기후위기와 젠더 불평등의 기원 : 커먼즈에 대하여 35
발표 : 박혜영 · 인하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우화』에 나타난 기후위기와 젠더, 돌봄의 미래 45
발표 : 김경옥 · 숙명여자대학교 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토론

서연화 · 여성환경연대 기후정의팀 팀장 67
송다영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77
이현재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 83

세션 2
기후변화와 젠더에 대한 도전과 대응방안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의 젠더 주류화와 심화 방향성 89
발표 : 오채운 ·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에코페미니즘으로 본 여성들의 기후위기대응 실천사례와 함의 99
발표 : 이안소영 ·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다종 간 관계성에 기반한 여성주의 생태시민성의 모색 113
발표 : 김효정 ·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전임연구원

토론

안영환 ·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 127
이정필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135
이상은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141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정기학술대회

기후변화와 젠더 : 도전과 대응

세션 1 기후변화와 젠더불평등

좌장 : 신경아 ·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성인지적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탐색

- 발표 : 장윤선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에코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기후위기와 젠더 불평등의 기원 : 커먼즈에 대하여

- 발표 : 박혜영 · 인하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우화』에 나타난 기후위기와 젠더, 돌봄의 미래

- 발표 : 김경옥 · 숙명여자대학교 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토론

- 서연화 · 여성환경연대 기후정의팀 팀장
- 송다영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현재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

성인지적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탐색

장윤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국문초록〉

1992년 5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INC회의에서 채택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은 온실 기체에 의해 벌어지는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이다. 기후변화협약은 선진국들이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각종 온실 기체의 방출을 제한하고 지구 온난화를 막는 게 주요 목적으로, 대한민국은 1993년 12월에 협약에 가입하였다. 매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성평등과 관련해서는 COP20(2014)의 리마프로그램, COP21(2015)의 파리협정, COP23(2017)의 젠더액션플랜 등에서 성평등을 위한 주요 의제가 논의되었다.

2021년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12호에 따르면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의 책임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부담과 녹색성장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어 사회적·경제적 및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기후정의라고 한다. 미래 대한민국은 2050년 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1인 가구가 모두 40% 이상인 인구구조·가구구성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래 한국사회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성평등한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완화·적응정책 수립을 위해 성별 통계를 생산·활용해야 한다. 또한 국가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시 '성평등' 정의와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고 기후위기 관련 전문인력과 정책담당자 등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공동체성과 시민의식, 돌봄의 공공성, 생태정치, 공유경제, 생태경제, 에코페미니즘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가치를 확산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기후변화, 기후정의, 생태여성주의, 성평등

성인지적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탐색

발표자 : 장윤선(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Chapter 1 서 론

The First Partner for Gender Equality KWDI

1. 연구 개요

➢ 본 내용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미래사회 성평등 도전과제 발굴을 위한 시리즈 연구 중 3차년도(2024)에 진행한 "미래사회 성평등 정책의 도전과제(Ⅲ) : 기후위기 대응정책의 성인지적 개선방안"의 연구 중 일부임

(※ 연구 진행 중인 자료이므로, 인용 시 최종보고서(24년 12월 31일 발간)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목적

- 기후위기가 성별, 연령, 직업, 지역, 장애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삶에 미치는 영향을 문헌자료(언론보도, 정책자료, 선행연구 등)로 살펴보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u>미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성인지적인 기후정의 실현방안을 모색</u>하고자 함

3

2. 기후위기의 정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 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4. "탄소중립 사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기술·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말한다.

5.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_2), 메탄(CH_4), 아산화질소(N_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_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6.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7.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변화를 완화 또는 지연시키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8. "온실가스 흡수"란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변화 및 임업활동 등에 의하여 대기로부터 온실가스가 제거되는 것을 말한다.

4

2. 기후위기의 정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9.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10. "에너지 전환"이란 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에 이르는 시스템 전반을 기후위기 대응(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관련 기반의 구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환경성·안전성·에너지안보·지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11.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2. "기후정의"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의 책임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부담과 녹색성장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어 사회적·경제적 및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13.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5

2. 기후위기의 정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14.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15. "녹색경제"란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를 말한다.

16. "녹색기술"이란 기후변화대응 기술(「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말한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신·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17. "녹색산업"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6

3. 기후위기의 악영향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의 악영향은 계속해서 심화될 것이다(1)

a) 기후변화로 인해 관측된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영향 및 그와 관련된 손실과 피해

b) 여러 물리적 기후 조건의 변화에 의해 영향이 발생하며, 이는 점점 더 인간의 영향으로 귀속된다

7

3. 기후위기의 악영향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의 악영향은 계속해서 심화될 것이다(2)

c) 현세대와 미래 세대들은 현재 및 가까운 미래의 우리 선택에 따라 더 뜨겁고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림 SPM.1: (a) 기후변화는 이미 전지구적으로 인간 체계와 변경된 육상, 담수 및 해양 생태계에 광범위한 영향과 관련 손실과 피해를 초래했다. 물리적 물 가용성은 지하수, 수질 및 물 수요를 포함한 다양한 출처에서 사용 가능한 물의 균형을 포함한다. 전지구 정신 건강 및 이동 평가는 오직 평가된 지역만 반영한다. 신뢰 수준은 기후변화에 대한 관측된 영향의 속성 평가를 반영한다. (b) 관측된 영향은 표시된 선택된 기후 영향 요인과 같이 인간의 영향에 기인한 많은 것을 포함하여 물리적 기후변화와 연결된다. 신뢰 수준과 가능성은 인간 영향에 대한 관측된 기후 영향 요인의 속성 평가를 반영한다. (c) 기후 조건 및 영향의 변화와 관련된 전지구 지표면 온도(1850~1900년 대비)의 관측(1900~2020년) 및 예상 변화(2021~2100년)는 기후가 이미 어떻게 변했고 대표적인 세 세대의 수명을 따라(각 1950년, 1980년, 2020년 생) 앞으로 변할 것인지를 보여준다. 전지구 지표면 온도 변화의 미래 전망(2021~2100년)은 매우 낮은(SSP1-1.9), 낮은(SSP1-2.6), 중간의(SSP2-4.5), 높은(SSP3-7.0) 및 매우 높은(SSP5- 8.5) GHG 배출 시나리오로 나타낸다. 연간 전지구 지표면 온도의 변화는 '기후 줄무늬'로 표시되며, 미래 예측은 인위적인 장기 경향을 보여주고 자연적인 변동성에 의한 지속적인 조정을 보여준다(여기서는 과거 자연 변동성의 관측된 수준을 사용하여 표시됨). 세대별 아이콘의 색상은 매년 전지구 지표면 온도 줄무늬에 해당하며, 미래 아이콘의 세그먼트는 가능한 미래 경험을 구분한다. *(2.1, 2.1.2, 그림 2.1, 표 2.1, 그림 2.3, Cross-Section Box.2, 3.1, 그림 3.3, 4.1, 4.3) (Box SPM.1)*

※ 출처 : 기후변화 2023 종합보고서(IPCC 제6차 종합보고서 국문본), 7쪽

8

4. 미래 기후위기 시나리오 : 계절의 변화

❖ 미래 계절길이의 변화 전망

✓ 우리나라의 봄 시작일은 지속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전망됨. SSP5-8.5 시나리오에서 2090년대에는 봄 시작일이 1월 28일로 2020년대에 비해 36일 빨라질 것으로 전망됨.
✓ 봄 시작일이 빨라지고 가을 시작일이 늦어짐에 따라여름 길이는 길어지고 있음. 여름 길이는 2020년대에 109일, 2090년대에 173일로 64일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겨울 시작일은 조금씩 느려지고, 봄 시작일은 빨라져서 겨울길이는 점차 짧아지고 있음. 겨울 길이는 2020년대에 92일에서 2090년대에 24일로 68일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출처 : 기상청 기후정보포털 >기후변화 영향정보>기상·기후부문> 계절길이
http://www.climate.go.kr/home/CCS/contents_2021/influence/inf_2-1.php

9

*. 계절의 변화(2)

10

4. 미래 시나리오 : 인구구조의 변화(1)

인구구조의 변화(1975년, 2000년)

4. 미래 시나리오 : 인구구조의 변화(2)

인구구조의 변화(2024년, 2050년)

4. 미래 시나리오 : 인구구조와 가구 구성의 변화(3)

미래 인구구조와 가구 구성의 변화

그림 1.1 인구 구조 및 고령인구 비율 변화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통계청, 2021)
주: 고령인구비율은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그림 1.3 가구 구조 및 1인 가구 비율 변화

자료: 통계청(2022)

※ 출처 : 2023 장기에너지 전망(9쪽, 11쪽)

13

4. 미래 시나리오 : 주요 업종 및 에너지 수요 변화

주요 업종 및 에너지 수요 변화

그림 1.5 주요 업종별 부가가치 증가율 및 비중 변화(2022~2050)

주: 건설업의 부가가치는 SOC를 포함

그림 1.11 최종소비 부문별 에너지 수요 변화

주: 산업 부문 에너지 수요에는 석유정제의 자체소비를 포함

※ 출처 : 2023 장기에너지 전망(13쪽, 22쪽)

14

Chapter 2 기후위기 관련 논의

The First Partner for Gender Equality KWDI

1. 해외 기후변화와 젠더 관련 논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외 주요 논의

- 유엔기후변화 협약(UNFCCC, 1992) :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
- COP20의 리마프로그램(Lima Work Programme on Gender, 2014) : (여성 대표성 외) 성인지적 기후변화 정책수립, 모든 UNFCCC 절차에 성 주류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역량배양, 교육 등) - 당사국 및 사무국 업무에 성 주류화 본격 추진
- COP21의 파리협정(2015) :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 유지, 1.5 ℃ 이하 제한 노력, 전문의 양성평등 포함 인권 제시
- COP23의 젠더액션플랜(2017) : 1)역량강화, 지식공유 및 소통, 2)성평등과 참여, 여성리더십, 3)정합성, 4) 성인지적 이행(수단), 5)모니터링과 보고 등 UNFCCC 사무국 및 젠더역락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활동 책임 담당자가 분야별로 선임
- 리마프로그램과 젠더액션플랜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젠더 주류화 핵심. 국제적 규범화로 녹색기후기금 등 관련 기구 구성, 당사국에 적용

16

1. 해외 기후변화와 젠더 관련 논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꾸리찌바 협약(1992)

➢ 개발요구와 환경보전의 균형 – 공동체 협력관계를 통한 개발
: 공동체 참여는 필수!

✓ 실천사항

1. 더 이상의 환경 훼손 없이 공공서비스를 모든 주민에게 확대하도록 한다
2. 점진적으로 에너지의 효율을 높인다
3. 점진적으로 모든 형태의 환경오염을 줄인다
4. 낭비는 극소화하고 절약을 극대화한다
5. 사회적· 젠더 차별 및 빈곤의 극복을 위해 노력한다
6. 아동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그들의 권익 실현에 노력한다
7.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을 통합·조정한다
8. 환경관리에 있어서 모든 공동체의 참여를 증진하도록 한다
9. 자치단체간의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가용자원을 활용한다

(출처 : 박용남(2007: 298), 꿈의 도시 꾸리찌바)

17

2. 국내 기후위기에 대한 논의

기후위기 대응의 성인지적 접근을 위한 국내 연구/정책 동향

➢ 기후위기와 젠더 이슈

1) 기후재해로 인한 사망과 기후난민 – 여성에 더 큰 영향
2)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성역할 부여 – 돌봄과 가사노동 증가
3) 식수, 식량안보, 연료 등 확보의 어려움
4) 건강 불평등
5) 젠더폭력 증가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여성의 역할 : 거버넌스와 여성의 참여
7) 산업별 여성 노동자의 피해 증언과 대책 미흡

➢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가치의 전환(에코페미니즘)

➢ 정부(지자체 포함), 국회,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등 기후위기 적응 대책 논의 확대

18

2. 국내 기후위기에 대한 논의

페미니스트 기후정의 선언

✓ 여성, 청년, 성소수자, 비인간동물을 모두 포함한 페미니즘의 관점이 기후정의 담론의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한다!

✓ 여성환경연대를 중심으로 동물해방물결, 민달팽이유니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달과나무, 장애여성공감, 청년기후긴급행동,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WCA연합회 총 11개 단체가 논의(2023.4)

[페미니스트 기후정의 선언 – 10대 요구안]

1. 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하라.
2.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라.
3. 기후대응 정책 전반에서 젠더 관점을 반영하라.
4. 여성·지역민 등 사회적 소수자가 주체가 되는 탈중앙집권적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하라.
5. 젠더 관점의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한다.
6. 인간과 비인간 동물 모두가 공존하는 종평등한 사회로 전환하라.
7. 핵발전, 석탄발전 계획을 폐기하고, 근본적인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하라.
8. 주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하라.
9. 여성 농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식량주권을 확보하라.
10.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이행하라.

(출처 : 여성환경연대 홈페이지, https://www.ecofem.or.kr/68/?bmode=view&idx=16568668)

19

2. 국내 기후위기에 대한 논의

기후위기 대응의 성인지적 접근을 위한 국내 연구/정책 동향

(출처 : 김양희 외(2007: 70~73),「국가균형발전모델의 성 주류화 전략개발 – 성 평등한 지역발전을 위한 사례분석과 가이드라인 개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중 '프라이부르크 도시 및 지역개발 성 주류화 사례')

[성 주류화 프로젝트(Zahringen지부의 전철확장) 효과]

☐ 자치정부 내
- 개발계획 단계에서 성 주류화를 고려하는데 대한 인식 제고
- 성 주류화에 대한 수용성 및 혜택 증가

☐ 기획자 및 공무원들
- 계획 수립단계에 시민의 제안을 수용하려면 성 인지적인 접근을 적용해야만 한다는 점을 보다 더 이해하게 됨
- 시의 개발관련 부서들의 협력이 향상되고 협력 경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상호 연대감이 강해짐

☐ 정책
- 성 주류화를 적용하는 프로포절과 절차에 대해 실질적이며 실현가능한 사례를 입증함

☐ 시민
- 시민들 사이에 시정부가 자신들의 관심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모든 사람들이 견해를 제시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있다고 느끼게 됨. 이에 따라 시 행정의 결과에 대하여 높은 수용과 만족을 보임
- 이 지역의 도시계획과 교통정책과 관련한 지식이 풍부해짐

☐ 전반적
- 초기부터 다양한 시민이 참여한 긍정적 경험으로 인하여 다른 계획을 추진할 때에도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가능해 질 것임

[도시 및 지역개발에 여성의 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 삶의 공간으로서의 지역을 위한 계획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양상을 고려함
☐ 계획의 기초로 성별 분리 통계를 활용함
☐ 참여적 기획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함
☐ 이동성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기본적 설비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함
☐ 고용의 가능성을 제공함
☐ 요구에 기반 한 대중교통의 확장으로 이동성을 높임
☐ 다양한 세대와 대안적 삶의 양식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과 주거단지 건설로 다양한 삶의 양식을 보장함

20

3. 기후위기에 대한 이슈화

기후위기 관련 언론보도 현황(1990~2024.9 : 빅카인즈)

➢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뉴스빅데이터 분석서비스인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를 활용하여 탄녹법 제2조 정의 중 11개 단어에 대한 연관어 분석을 실시함

➢ 2007년에는 22,524건으로 큰폭으로 상승, 2000년~2007년 사이 '온난화'가 가장 큰 이슈, 2006년 이후 온난화와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의 심각성,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 산업 기사 확산

➢ 2017년부터 2024년 9월 사이의 기후위기 관련 언론 기사는 2021년에 239,193건으로 2009년 이후 가장 많이 보도

➢ '탄소중립정책'이 기후위기의 주요 정책 이슈로 부상

* 지구온난화를 경고한 언론 기사는 뉴질랜드 '로드니 앤더 오타마테아 타임즈의 1912년 8월 14일자로, "전 세계의 용광로에서 해마다 석탄 20억톤이 불탄다. 이것이 산소와 결합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70억 톤을 배출한다. 공기는 지구를 뒤덮는 장막이 돼 온도를 올린다. 수 세기 안에 효과가 매울 커질 수 있다" (한국일보(2021.08.14.), 100년 전 신문에 실린 '지구온난화' 예고 … 경고는 생각보다 빨랐다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81219540000966)

21

3. 기후위기에 대한 이슈화

기후위기 관련 언론보도와 연관어 분석 결과(1990~2024.9)

[연관어 분석 결과 1. 오존층]

[연관어 분석 결과 2. 온난화]

[연관어 분석 결과 3. 온실가스]

[연관어 분석 결과 4. 에너지 전환]

22

3. 기후위기에 대한 이슈화

기후위기 관련 언론보도와 연관어 분석 결과(1990~2024.9)

[연관어 분석 결과 5. 녹색성장]

[연관어 분석 결과 6. 신·재생에너지]

[연관어 분석 결과 7. 기후변화]

[연관어 분석 결과 8. 탄소중립]

3. 기후위기에 대한 이슈화

기후위기 관련 언론보도와 연관어 분석 결과(1990~2024.9)

[연관어 분석 결과 9. 기후위기]

[연관어 분석 결과 10. 정의로운 전환]

[연관어 분석 결과 11. 기후정의]

- ✓ (오존층) 연령, 인종 등에 따른 건강 악화
- ✓ (온난화) 성별, 연령별 건강 이슈, 여성농업인의 생태농업활동 등
- ✓ (온실가스) 섬유폐기물 절감 및 수선보너스제도, 패스트패션 벌금 등
- ✓ (에너지전환) 여성과학기술인 여성대표성, 친환경 에너지전환과 여성 지원정책 등
- ✓ (녹색성장) 여성단체의 녹색생활 캠페인, 여성농업인 육성 등
- ✓ (기후변화) 미래세대, 고령화, 여성농업인 지원 및 정책참여, 여성리더십, 여성 건강(월경)권 등
- ✓ (기후위기) 세대, 성별 등을 고려한 다양한 참여
- ✓ (정의로운 전환) 에너지 전환과정의 여성일자리 문제
- ✓ (기후정의) 시민 참여, 기후정치, 축산/동물권, 생태계 문제 제기

Chapter 3

The First Partner for Gender Equality KWDI

기후위기 대응의 성인지적 접근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1. 초점집단면접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기후위기 관련 정책담당자 및 관련 위원회 위원, 기후위기와 젠더이슈 등을 심층취재한 기자, 전문연구기관 연구자, 기후변화와 젠더이슈를 논의하는 비영리기구 관계자 등을 전문가 자문단의 추천을 통해 약 20명을 대상으로 진행

- 질문 내용

구분	질문 내용
개인의 인식	▪ 젠더관점이 통합된 기후위기 대응정책의 필요성
기관에서의 중요도	▪ 소속 기관에서의 기후변화(위기/재난) 이슈에 대한 중요도
기후위기 대응의 주요 기구 또는 집단, 그 역할	▪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기구와 그 역할
정책 지지기반 형성 및 정책 수용도 제고 방안	▪ 기후위기에 대한 성별 인식 격차에 대한 해석 ▪ 기후위기 정책지지 그룹 형성과 활동 ▪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방안
정책 대안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또는 운동 ▪ 기후정의, 젠더정의 실천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26

1. 초점집단면접

조사 결과

1) 기후위기 심각성 인식

-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인식되고 있으나 시급성이나 시의성에서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
- 폭염이라는 기후재난 속에 우리사회는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음에도 위한 녹지 조성 및 확대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도시개발의 필요성 보다는 도시의 열섬현상을 가중시키는 초고층 재건축의 욕망을 따라 올 수 없다는 비판적인 의견 제시 : 현재 노후된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관심은 기후위기 대응이 아닌 '집값' 즉 부동산 자산 증식을 위한 재개발로, 이미 체감하고 있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지조성이나 친환경 건축, 신재생에너지 활동 등은 중요한 의제가 되지 못함
- 향후 우리사회의 인구구조 변화 상황을 감안할 때 기후위기 대응의 취약성은 매우 심각
- 기후위기의 심각성 등에 대해 성별, 연령대별 인식 격차 : 정치 성향, 생애주기에 따른 경험과 상황에 따른 차이
-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의 제공을 통해 이해 제고 필요

27

1. 초점집단면접

조사 결과

2) 기후위기 대응의 변화

- 기후위기는 모든 인간과 생태계가 얽힌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새로운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구축하는 과정 전체가 변화이고 혁신
- 기후위기의 복합성 : 정책간의 연계 중요함, 각 분야 별로 분리되거나 분야 내에서도 단절적으로 제도나 정책이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 지적
- 탄소중립 이행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국제연대-국가 주도'의 방식의 실효성 평가
-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수도권 중심의 산업구조에 대한 문제점

3)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실천

-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의 책임' : 기후위기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취약할 수 밖에 없음을 강조. 즉 기후위기는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통제와 예측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삶을 위협하는 기후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음을 의미
- 다양한 상황을 인지하고 주변에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기후재난에 대비할 후 있는 사전 실전 교육훈련 필요
- 기후재난 유형에 따른 다양한 상황과 피해자 파악을 위해서는 먼저 젠더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

28

1. 초점집단면접

조사 결과

3)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실천

- 기후재난 유형에 따른 다양한 상황과 피해자 파악을 위해서는 먼저 젠더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 : 기후재난의 유형과 그로 인한 사상자의 젠더 차이 분석, 성별 임금 격차나 경제적 취약성, 위기상황에서의 여성폭력 취약성(예: 피난시설의 여성 안전문제) 등 재난 상황에서 더 악화될 수 있는 여성차별 문제
- 미래 1인가구 증가나 고령화는 생태계 위기, 에너지, 노동, 돌봄 등의 문제 야기
-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석탄 등 화력발전소의 폐쇄가 가져올 일자리 문제에서 여성, 비정규직의 문제,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따른 일자리 전환과 여성 일자리에 대해서는 논의 조차 되고 있지 않음
- 여성 대표성 제고 :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서조차 여성의 주변화 문제가 심각, 여성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제기할 수 있도록 기획
- 여성리더에 의한 새로운 전환 : 1991년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첫 여성원장인 버나딘 할리(Bernadine Healy) 원장, 프랑스의 안 이달고(Anne Hidalgo) 파리시장
- 성 인지적 접근은 전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함

29

1. 초점집단면접

조사 결과

4) 기후위기 적응 대책

- "2023년 이후에는 매년 여름이 평년보다 더운, 폭염이 일상화된 '뉴 노멀'(New Normal·새로운 표준) 시대에 진입"할 것임
- 폭염에 대한 기억이 2~3년 정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연령별 폭염에 대한 경험과 그로 인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다를 것임을 지적
- 폭염 대응을 위한 에어컨 가동은 실외기의 열로 도시의 열섬현상을 가중시키고 심지어 에어컨 화재사고 등 또한 2024년의 주요 폭염사고로 기사화
- 폭염 시 야외노동자의 작업 중지 등을 위한 조치 필요 : 국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를 개정해 사업주가 폭염과 한파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통과('작업중지권' 조항 등이 삭제된 대안으로 의결)
- 기후재난 중 폭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의 침수와 사망사건 등은 기후재난이 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
- 기후위기로 인한 각종 이상기후는 인간의 건강권에 약영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전염병은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원인

30

1. 초점집단면접

조사 결과

4) 기후위기 적응 대책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과학기술의 수준을 파악하여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보건이나 의료계에서는 온열질환과 관련해서는 성별 차이에 거의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음
- 기후위기와 건강에 대한 문제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고 이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서 담당하며 이를 지원하는 운영체계의 설립 필요
- 폭염의 온열질환 같은 경우, 병원에서 병명코드를 온열질환 코드로 작성하는 사례보다 기저질환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더 많아 온열질환으로 기저질환이 악화된 경우에는 질별관리청의 온열질환 통계에 산정되지 않는 문제점 지적
- 온열질환자 수보다 실제 온열질환으로 건강이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

31

1. 초점집단면접

조사 결과

5) 주체별 역할과 접근 방식

- (언론) 일반국민과 정책담당자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정책의 지지 방향을 이끌어간다는 측면에서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
- (정부,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 등은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하는 하향식 구조로, 지역에서는 다시 시·도와 시·군·구가 계획 수립과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역할과 기능을 분담, 기후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의 대처 방법의 교육과 훈련 필요
  - 지역단위의 적응정책으로 지역 공동체가 제기능 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국회) 국회는 감시 가능과 함께 국회의원의 입법기능이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주요 역할
- (일반국민) 주권자로서 기후정치에 대한 지지를 통해 기후위기 완화·적응정책의 실효성 확보
- (시민사회) 시민단체나 비영리기구와 같은 민간단체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활동은 크게 '기후정의행진'과 운동과 캠페인을 통한 인식 전환과 지지, 전문지식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연구성과나 정책아이디어를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국회나 정부 주요 의사결정권자에게 전달하고 정책화하도록 하는 활동으로 구분

32

1. 초점집단면접

조사 결과

6) 가치, 목표의 전환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 기후위기 대책은 산업·에너지 전환 중심의 탄소중립정책 외에도 다양한 측면이 어울어져야 가능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기후정치의 인식을 제고하여 통해 선거를 통해 정치 변화 유도
- 약자와 취약계층의 소외와 직·간접적인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일환으로 관련 정책을 '젠더렌즈'로 들여다보고, 성평등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공동체성과 시민의식을 강화하고 돌봄의 가치로 전환해야 함을 여러 연구참여자들이 주장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생태정치, 공유경제, 생태경제, 에코페미니즘과 같은 가치의 확산 필요
- 향후 저출생·초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와 1인 가구가 절반을 차지하는 생활행태 속에 지속가능한 삶의 위한 해법을 청년세대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일방의 외침이 아닌 세대간 "소통"을 확산하고 증진할 채널을 다각화 필요

33

1. 초점집단면접

조사 결과

6) 가치, 목표의 전환

- 기후위기의 전환을 산업혁명의 변화에 비유하며, 기후위기 전환을 외면하면 도태될 수 밖에 없음
- 현재의 성장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앞으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야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성장주의를 버리고 축소사회로 패러다임을 전환 의견 제시
- 현재와 같은 경제성장을 추구하면 결국 지구는 '찜통지구'의 계곡으로 빠지게 되고 결국 생존이 어렵게 된다는 과학적 연구 근거가 있음에도 주류에서는 여전히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문제임을 지적

34

2. 전문가델파이조사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기후위기 관련 정책담당자, 기후위기와 젠더이슈 등을 심층취재한 기자, 전문연구기관 연구자, 기후변화와 젠더이슈를 논의하는 비영리기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추천을 통해 46명이 참여

- 질문 내용 :
  - (1차) 기후위기 완화,적응 정책이 필요한 11개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 지정
    - 11개 분야 별 주요 영향 3순위 선정 및 각 항목의 다양한 삶에서 고려할 사항
  - (2차) 2050 기후위기의 삶의 모습 (사례 1~6)에 참고하여 수도권(및 대도시) 또는 농어산촌 지역 거주민의 다양한 삶의 고려사항

35

2. 전문가 델파이조사

1차 조사 결과

세부 분과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계
1) 기상변화	**9**	6	3	2	1	3	24
2) 생태계	4	4	4	6	3	7	28
3) 환경오염	2	1	3	6	4	7	23
4) 에너지 수요 /공급	4	5	2	4	7	5	27
5) 저탄소 기술정책	1	2	3	3	1	1	11
6) 재난·안전	**11**	**16**	6	5	6	1	**45**
7) 도시 인프라 · 주거시설	4	4	**12**	5	4	3	**32**
8) 건강	**8**	4	4	9	7	4	**36**
9) 1차 산업	2	4	**7**	3	7	7	30
10) 2~4차 산업	1	0	1	2	3	3	10
11) 정치 · 외교 · 통상	1	1	2	2	4	5	15

36

2. 전문가 델파이조사

2차 조사 결과

(수도권 및 대도시)

- 현재 현황 및 실태 파악 미흡, 미래 대비 어려움
- 영유아, 아동,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지원
- 다양한 공공시설 확충 및 운영 내실화
- 인구구조·가구구성의 변화에 따른 인적 특성 파악 및 지원대책 다면화
- 공동체 복원, 돌봄의 공공성 강화,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및 네트워크 지원
- 기후재난(폭염, 폭우, 폭설, 한파 등) 대비 교육 훈련 및 상황별, 주체별 매뉴얼 개발 및 보급 확대
- 기후위기 상황의 노동 악화 등 대비 : 공공사회서비스, 기후보험 등 인프라 구축 필요
- 기후위기와 건강 : 신체 및 정신 건강 지원
- 도시기반시설(도로 등)의 정비, 미래 이동수단 고려 필요
- 식량 안보 위협

37

2. 전문가 델파이조사

2차 조사 결과

(농어산촌)

- 농어산촌 지역 인구 감소(소멸)로 인한 문제 파악 및 사람 중심 대안 모색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신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의 성별영향 분석
- 기후위기로 인한 1차 산업 생산량 감소와 농어업 등의 기술력 확보와 정보 제공
- 지역별 극한의 기후재난(폭우, 폭설, 우박, 태풍 등) 대비 체계 구축
- 기후위기 대응책의 사각지대 해소 및 지원 다각화 :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확보, 주요 정책의사결정의 참여 등 대표성 증대
- 의료, 공공시설, 각종 재가서비스 등의 지원 인프라 구축 및 성인지적 접근 필요
- 다문화 가정 및 이주노동자 정책의 젠더이슈 발굴 및 성인지적 정책 수립

38

2-1. 기후위기 미래 전망과 다양한 삶의 모습

[사례 1] 여성 A(70세, 1980년 출생, 인천광역시 아파트 33층, 2인 거주)

폭염에 대한 기억은 1994년 중학교 2학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체육시간에 온열질환으로 쓰러진 친구도 있었고, 폭염으로 집집마다 에어컨을 설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더위는 다시 없을 줄 알았는데, 2018년 아이(2011년 출생, 남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에 무척 더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기후위기와 관련된 일들로는 2020년부터 2년 정도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아이가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저도 재택근무를 했죠. 코로나-19때 처음으로 생태기후위기 문제를 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폭우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잠긴다고 안내방송이 나오고, 새벽에 자다말고 차를 옮겼던 기억이 나네요. 2024년에도 아이가 중학교 입학하고 무척 더웠고, 그 이후로 4월 봄부터 여름철 더위를 걱정하게 된 것 같아요.

요즘은 한여름 폭염과 열대야 때문에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놓고 지내니 전기료도 많이 나오고 그래도 여름이 오기 전에 고장날까봐 꼭 에어컨 점검을 받고 있어요.

여름에 집에서 에어컨 사용하고 외출을 잘 안하다 보니, 기관지도 안좋고 운동량이 줄어드니까 근손실도 커져서 건강도 걱정됩니다. 며칠 전 같은 동 45층에서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있었어요. 화재 경보기는 울리고 대피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오는데 계단으로 1층까지 내려가려니 덥고 다리가 아파서 너무 힘들었어요. 12층 정도 내려가다 더는 못가겠어서 난간을 잡고 주저앉았는데, 다행히 이웃 주민(40대 초반, 여성)이 도움을 주어서 겨우 1층까지 내려왔어요. 그때 두통과 구토 증상으로 병원에 갔더니 온열질환이라고 해서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틀 정도 전기 공급도 안되느까 냉장고에 있던 음식도 다 상하고, 물도 안나오고 집에 있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혼자 사시는 80대 할아버지가 약간 치매증상이 있으셨는데 더위에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집에 계시다가 쓰러지셔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온열질환이라고 하는데... 너무 안타깝죠.

요즘은 과일과 채소, 달걀도 비싸고 직접 물건 보고 사고 싶은데 더워서 장보기도 어렵고... 여름 지내기 너무 힘들어요. 게다 공기질도 안좋으니 환기도 어렵고요. 가끔 집 주변 도서관이나 박물관에 가곤 하는데, 실내니까 시원하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운동도 되고, 사람들로 만나고, 또 식사도 해결할 수 있어서 좋아요.

39

2-2. 기후위기 미래 전망과 다양한 삶의 모습

[사례 2] 남성 A(80세, 1970년 출생, 경기도 전원주택, 1인 거주)

젊은 시절에는 에어컨도 별로 없었고 또 한여름 더위도 7월말-8월중순 지나면 아침저녁으론 선선했는데, 40-50대부터는 무척 더워진 것 같아요. 그 전에도 폭우나 산사태도 종종 있었지만 언젠가 부턴 비가 많이 올 때는 외출하기 전에 꼭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다녔어요. 한번은 폭우에 차를 운전하다가 지하차도 앞에서 3시간 넘게 서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래도 지하차도 안쪽에 있지 않았던 게 다행이라 여긴 적도 있습니다. 건설업 쪽에서 일했었는데, 50대 전후로 여름철 공사현장에서 일하기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공사기간이 지연되면 안되니까 한여름 낮에만 잠깐 쉬고 계속 일했는데 어느 날은 두통이 심하더니 어지럽고... 너무 힘들었고, 다음날 아침까지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아픈 적도 있습니다. 또 건설현장이 먼지도 많고 힘들어요. 현장에서 일할 때 그나마 50대 사람들은 더위를 힘들어도 견뎠는데, 20-30대 젊은 사람들이 더 힘들어 했어요. 폭염에 일하는 것도 내성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다들 폭염에 일하는 건 힘들었습니다. 2030년 쯤인가? 야외노동자의 온열질환과 사망률이 늘어나니까 폭염에 야외 노동을 중지하고 더위쉼터를 제공하는 작업장도 있었지만 소규모 영세작업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집 근처 체육관에서 운동도 하고 복지관도 갔었는데 요즘은 건강도 안좋고 특히 청력이 좋지 않아 잘 안들리니까 대화도 어렵고 외출하기도 싫고... 거의 혼자 지낼 때가 많아요. 가끔 아들이나 딸이 오고 가긴 하는데, 또 다들 바쁘니까요. 예전에는 친한 지인들과 주말농장도 하고 집에서 텃밭 가꾸기도 했었는데, 작물도 잘 안되고 힘들기만 해서 안한지 꽤 됐습니다. 더울 때나 날씨 안좋을 때는 집에만 있으니까 갑갑하고 또 우울할 때도 많아요. 식사는 반찬배달을 이용해서 집에서 주로 혼자 먹습니다.

에어컨을 바꿔야 하는데, 사는 것도 설치하는 것도 일이라... 그냥 지내고 있어요. 이제 운전도 못하니까 외출을 더 안하게 되고 딱히 가고 싶은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건강도 더 안좋아지는 것 같아요. 주택 1층에 살다보니 계단은 별로 없어서 다니긴 편한데 모기가 많고, 일년내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못보던 벌레도 많고요. 요즘은 병원 갈 때나 외출하네요...

40

2-3. 기후위기 미래 전망과 다양한 삶의 모습

[사례 3] 여성 B(40세, 2010년 출생, 서울시 주거형 오피스텔 7층, 1인 거주)

저는 어릴 때부터 여름은 항상 더웠고, 집이나 학교, 학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항상 에어컨이 가동되니까 실외가 아니면 그렇게 덥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등하교는 도보로 하다보니 너무 더웠어요. 특히 여름에 학교에 가든 외출했을 때 갑자기 생리를 시작하면 너무 곤란했어요. 옷도 얇고... 그래도 학교 여자화장실에는 무상생리대가 비치되어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었는데, 다른 공중화장실에는 비치되지 않은 곳도 많았어요. 뭐... 요즘은 일화용품 사용이 제한되니까 생리대를 잘 사용하지 않지만요.

저는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니까 재택근무는 못해요. 폭염이나 폭우에도 꼭 출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IT 업계에 있는 친구들이 폭염이나 폭우 때 재택근무한다고 하는 건 좀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특히 재가요양방문 등 출장을 가야 할 때는 더위도 문제지만 오존 농도가 높거나 하면 특수마스크까지 착용해야 해서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환기는... 대기질도 안좋지만 창문 열어 놓는 게 불안해서 잘 열지 않거나 안전장치를 하고 조금만 열기도 합니다. 예전부터 여자 혼자 사는 집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탈 때도 신경 쓰이구요. 식사는 외식이나 주문식품(3D 프린팅 식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집 주변에 녹지공간이 별로 없고 고층건물만 있어서 야외 활동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날씨가 좋을 때는 공기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41

2-4. 기후위기 미래 전망과 다양한 삶의 모습

[사례 4] 남성 B(30세, 2020년 출생, 서울 아파트 12층, 3인 거주)

60대 후반의 부모님과 거주하고 있고, 얼마 전까지 의료분야(병원)에서 일하다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매년 가장 더운 여름이라는 말을 들었던 거 같아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나 감염병도 많다보니 여름 업무량이 많았습니다. 더워도 감염병 등을 예방해야 해서 늘 특수마스크나 감염복을 착용하는 게 힘들고요. 또 혼자 내원하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시력이나 청각이 좋지 않거나 인지장애가 있는 분들도 계셔서 더 신경서서 소통해야 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특히 간호간병 인력이 대부분 여성이다보니 남성환자를 돌보거나 힘을 쓰는 일은 남성인력이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의료분야의 성별 분업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성역할 고정관념이 있기는 합니다.

돌봄 문제는 주변에서 봐도 육아보다는 어르신 돌봄이 더 많죠, 저희 세대는 부모돌봄만 있는 게 아니라 조부모, 심지어 이모, 고모, 삼촌 돌봄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프실 때도 많고 또 폭염에는 이동하시기 더 어려우니까 집안 어른들을 도와드려야 할 때도 많고요. 자율주행차가 있어서 그나마 이동이 수월한 편이지만 이동 목적에 따라 다르고 또 소통이 필요하니까요.

집 주변에 근린 공원이 있긴 한데, 대기질도 안좋고 고층 빌딩사이에 있어서 별로 산책이나 야외활동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42

2-5. 기후위기 미래 전망과 다양한 삶의 모습

[사례 5] 여성 A(80세, 1970년 출생, 전북 거주, 1인 거주)

도시에 거주하다 40대에 농촌으로 이주해서 요식업과 농사를 병행했어요. 농사만 해서는 생계가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한옥마을 인근에서 식당을 했는데, 겨울, 봄에는 대기질이 너무 안좋아서 관광객도 줄고, 또 여름은 너무 더워서 식당에서 요리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특히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려고 농사도 같이 했는데, 폭염, 폭우, 강풍, 병충해 피해 등등 농사일도 힘들고 농산품 질도 떨어지고 수확량도 줄어들고 어려웠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팜에서 재배하는 양이 많아졌지만 스마트팜도 탄소배출하는 건데... 그리고 밭작물은 종류도 품종도 다양해서 스마트팜에서만 재배할 순 없는 게 많아요. 요즘은 밭작물용 농기계도 많이 개발되었지만 그래도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2000년대에 일부 여성농민들 사이에서 생태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안농업운동을 했는데 여성농민들이 운동도 하고 정치 쪽에서도 목소리를 내면서 여성농민들을 위한 지원책이 생기긴 했지만 생태농업에 대한 인식도 정부지원도 부족했던 게 문제였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그나마 농촌에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폭염이나 대기질이 더 나빠지면서 외국인 노동자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촌에는 정말 일할 사람이 없어요... 또 폭우로 산사태라도 나면 도로 복구도 쉽지 않아 고립되기 일쑤고 아프면 갈 병원도 없어서 근처 도시로 가야 하는데 이동도 어렵습니다. 가뭄이 심할 때는 식수도 농수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틀어야 하는데 전기료도 걱정입니다.
무엇보다 근처에 사람도 별로 없으니 이런 저런 상황에서도 이웃 간에 도움주고 받기도 어렵고요.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오기 힘들죠. 아이들 다닐 학교도 없는데요.
얼마전 폭우로 이재민들에게 폐교한 학교 강당을 피난시설로 제공한 적이 있었는데, 덥고 씻는 문제도 불편했어요, 시설이 부족하다보니 남자/여자를 구별해서 생활했어요. 저는 그나마 동네 할머니 친구들이 있어서 같이 지냈지만, 어떤 할아버지는 치매라 배우자인 할머니 도움이 있어야 생활할 수 있었는데 시설에서는 함께 있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농촌은 노인들이 많으니까 이런 피난시설의 비상식량도 노인식을 준비해주면 좋겠습니다. 노인성 질환을 위한 구급약도 필요하고요.

43

2-6. 기후위기 미래 전망과 다양한 삶의 모습

[사례 6] 남성 A(70세, 1980년 출생, 경남 거주, 2인 거주)

도시에 거주하며 중공업에 종사하다가 40대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소규모로 밭농사와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포도나 복숭아, 단감 재배도 많았는데, 2020년 전후로 아열대 작물 재배 붐으로 일어나면서 애플망고나 레드향, 천혜향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같은 곳에서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해주는데, 바쁘다 보니 교육받으러 갈 시간이 부족한 게 문제였습니다. 요즘은 좀 달라지긴 했지만 예전에는 이런 농업교육은 농가주 위주로 운영되다보니 대부분 남자들이 교육받고 하니까 여성 농민들이 기술이나 정보도 부족하고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다른 지원책도 부족했습니다.
농촌에서는 폭염과 폭우, 태풍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많은데 지자체에서 농작물재배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어 그나마 피해에 대비할 수 있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농업인들이 고령화되고 외국인 노동자도 줄어들면서 일손 부족이 심각합니다. 또 폭염에 온열질환자에 대한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새로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폭염에 대한 정보 접근이나 농업지식이 부족한 것도 어려움입니다. 또 가장 더운 낮시간에는 쉴 수 있도록 이동식 쉼터를 제공해주는 곳도 있지만 쉼터 안도 더워서 차라리 숙소에서 쉬고 다시 이동하는 편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노동시간과 임금 등을 계산하는 것도 관리자의 역할이라 농경영 컨설팅도 필요합니다.
오래 일할 노동자는 가족이 함께 이주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거나 교육, 의료 문제 등이 심각합니다. 이들과의 문화 차이에 따른 오해나 갈등도 있고요. 지역 공동체에서 알아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습니다.

44

Chapter 4

The First Partner for Gender Equality KWDI

성인지적 기후정의 실현 방안

1. 정책 대안

기후위기 대응정책의 성 주류화를 위한 정책제안(1)

- 성별 균형 참여 : 여성 대표성 제고와 다양한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 기후위기 완화 및 적응대책 수립 기구의 여성 과소대표의 문제, 기후위기 대응 시 민단체 활동가의 참여 확대
- 기후위기 대응정책의 성별통계 생산 및 활용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 시 젠더 이슈 발굴 및 반영

  예시 1) 농업, 임업, 어업 등 여성종사자의 지위 보장 및 지원정책 수립

  예시 2) 에너지 산업 전환과정에서 여성노동자의 참여와 재교육 등의 기회 보장

  예시 3) 기후재난 대비 매뉴얼 개발 : 성별, 연령, 장애여부 등 다양성 고려
- 국가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수립 시 '성평등' 정의 포함 및 성인지적 관점 적용
- 기후위기 대응 전문인력 및 정책담당자 등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 기타 정책 및 예산 분석평가제도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 : 기후보건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의 성 주류화 제도와의 연계 방안 모색

46

2.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의 실현

성인지적인 기후정의 실현 방안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全 국민'의 기후정치의 인식 제고
- 약자와 취약계층의 소외와 직·간접적인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의로운 전환' – '젠더렌즈'로 들여다보기, 다양한 여성의 참여 확대
-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공동체성과 시민의식 강화, 돌봄의 공공성, 생태정치, 공유경제, 생태경제, 에코페미니즘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가치 확산 필요
- 저출생·초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와 1인 가구 확대 : 생활 속에 지속가능한 삶의 위한 해법 - 청년세대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변화, 일방의 외침이 아닌 세대간 "소통"을 확산하고 증진할 채널의 다각화 필요

47

2.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의 실현

다 함께 고민할 문제

- 성별, 연령(세대), 장애, 지역, 직업, 계층, 민족, 종교, 문화 등에 따른 다양한 삶의 지속가능한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국가·사회 인프라 구축 및 지원은 어디까지 얼마나 가능한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패러다임, 가치와 시스템 변화 : 무엇을 얼마나 버리고 받아드릴 수 있는가?
- 역사에서 찾아보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목표

  -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백범일지 중 나의 소원)

  (출처 : 김구재단 홈페이지-백범김구자료 게시판,
  https://www.kimkoo.org/board/kimgu_view.asp?skey=&stext=&idx=312)

48

2.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의 실현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오,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에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仁義)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중략)

우리의 용모에서는 화기가 빛나야 한다. 우리 국토 안에는 언제나 춘풍(春風)이 태탕(駘蕩)하여야 한다. 이것으로 영속될 것이다. 최고 문화로 인류의 모범이 되기로 사명을 삼는 우리 민족의 각원(各員)은 이기적 개인주의자여서는 안된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주장하되, 그것은 저 짐승들과 같이 저마다 제 배를 채우기에 쓰는 자유가 아니요, 제 가족을, 제 이웃을, 제 국민을 잘 살게 하기에 쓰이는 자유다.

공원의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다.

(중략)

***우리나라의 산에는 삼림이 무성하고 들에는 오곡백과가 풍성하며, 촌락과 도시는 깨끗하고 풍성하고 화평한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동포, 즉 대한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얼굴에는 항상 화기가 있고, 몸에서는 덕의 향기를 발할 것이다** (이하 생략) "*

49

에코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기후위기와 젠더불평등의 기원: 커먼즈에 대하여

박혜영 (인하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국문초록〉

미즈는 차이와 평등(difference and equality)이 오늘날 포스트페미니즘의 주요관심사가 된 점을 비판하면서 억압과 착취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원래의 페미니즘운동의 지향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평등권 쟁취운동은 결국 불평등을 낳는 체제를 인정하는 체제내의 운동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서구부르주아 남성의 특권을 전 세계 모든 여성들이 똑같이 나눠 갖는다는 것은 한 개의 지구에서 80억 인구가 모두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여성들에게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미즈와 일리치의 입장을 따라가면 페미니즘이 바라는 남녀 간의 협업과 평화는 공유재로서의 자연의 회복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남성이건 여성이건 공동체적 젠더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온전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 모두를 고립하여 상품화시키는 자본주의 산업사회체제가 아닌 새로운 대안적 체제가 필요하다.

이것이 미즈가 말한 자급적 관점(subsistence perspective)이지만 다른 말로 하자면 공유적 협업에 바탕을 둔 더 많은 자율적, 공통적, 민주적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정치적으로는 자치적인 직접민주주의이자, 경제적으로는 자립적인 지역화라고 하겠다. 이렇게 여성 젠더의 자급적 힘을 키워 고립과 상품화를 막는 것이 바로 자연약탈과 생태계파괴를 막을 방법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 억압과 착취로부터의 해방, 공유재로서의 자연, 공동체적 젠더, 자급적 관점, 공유적 협업

에코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기후위기와 젠더불평등의 기원

- 커먼즈에 대하여

박혜영 (인하대 영문과 교수)

목차

1. 기후변화와 자본주의 우회하기
2. 경제성장과 젠더불평등의 기원
3. 공유지의 비극인가, 공유지 상실의 비극인가?

Climate Change
emergency

Greenhouse gas -
Carbon Emissions

Economic Growth
Degrowth
"Less is More"

Overpopulation
Decline
"Making kin, not babies"

기후위기에서 자본주의 우회하기 – 인구통제론

- 인구과잉에 대한 종말적인 공포 (자본주의 우회하기)
  - 세계 인구는 2100년에 110억명 예상
  - 적정인구는? (인구폭발 vs 인구절벽)

  -> 문제는 탄소인간의 증가! (the North vs the South)

  -> 해법은 탄소인간에서 퇴비인간 되기

- 비인간 생물종의 대멸종(Holocene Sixth Mass Extinction)
  - 원인은 자본주의
  - 야생 서식지의 소멸 & 동물의 고기화

생태계 파괴의 근본 원인 – 경제성장(탄소 자본주의)

- 생태계에 정의로운 경제성장은 가능한가?
-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은 가능한가?
- 경제성장으로 젠더 불평등은 사라질 수 있는가?

* 에코페미니즘: "우리는 썩은 파이를 똑같이 분배하는 것엔 관심이 없다"

gynocide(가부장제)	=	genocide(식민주의)	=	ecocide(자본주의+과학기술)
여성		비서구, 토착민		자연
남성중심주의		서구중심주의		인간중심주의
(androcentrism)		(Occidentalism)		(anthropocentrism)

ex) Maria Mies, Vandana Shiva, Veronika Bennholdt-Thomsen
-> 가부장제는 사적영역부터 사회(경제), 전지구적 영역으로 확장 (남성적 시스템의 보편화)

젠더 불평등의 기원 – 경제성장

- 이반 일리치(Ivan Illich) - <젠더>와 <그림자 노동>

- 자본주의 생산양식으로의 전환
  - 젠더의 통치(reign of gender) vs 희소성의 체제(regime of scarcity)
  - 토착 젠더(vernacular gender)의 상실과 성차별(sexism) 사회의 등장
  - 산업 생산품에 의존하는 생활 방식(탄생에서 죽음까지 전문가의 개입)
  - 자본주의의 성별 노동 분업 (임금 노동과 무임금 노동으로의 분리)

→ 경제가 성장하면 성평등이 이룩된다는 페미니즘의 신화는 신화일뿐!

페미니즘의 고정관념(certainties)

* 토착 젠더의 특징:
- 젠더의 표식의 다양성
- 젠더는 개별적 행위라기 보다는 공통의 경험 (장소에 토대)
- 자급적, 자율적, 자치적 역사성

—"젠더는 두 다리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행동거지마다 존재하는 것이다." -Ivan Illich

• 경제성장은 토착 젠더의 파괴와 경제적 성(economic sex)의 착취로 가능한 것임
-> 경제적 인간(homo oeconomicus)의 탄생
섹스로밖에는 구별되지 않는 경제적 중성자(neutrum oeconomicum)를 성별로 구분한 것이 지금의 젠더임 (social sex)
-> 여성의 경제적 차별과 종속의 기원

그림자 노동(shadow work) – 산업사회와 함께 시작됨

* 상품에 추가 가치를 더해주기 위해 소비자가 행하는 무보수 노동
-> 상품이 소비하는 단위가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시간의 손실이 동반되기에 '노동'임
'그림자'인 것은 이런 수고가 소비행위와 연관되거나 준비과정이기에
-> consumption-associated unpaid toil

* 가사노동: 19세기부터 확산된 임금 노동과 병행하여 유례없이 생긴 두 번째 경제활동
-> 임금노동보다 더 불평등한 종류임
-> 이 새로운 경제활동의 본질은 성차별 (성별노동분업, 그림자노동, 개별고립노동)
<-> 전통사회에서의 여성의 가사노동 (젠더 노동, 협업노동, 가내경제에 상보적인 노동)
ex) 가정주부: wife + house 결합은 과거엔 없던 현상임

현대의 가정

• 현대의 아파트: 차고와 본질이 같음
-> 공간의 희소성이라는 가정 하에 디자인됨
-> 젠더 부재의 경제적 시공간- specialized residence for sexual partners
-> 생산 자원을 밤새 보관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건설된 것
=> making a home이 불가능함, 그림자 노동만을 위한 구조임
-> 단일 성적인 건축에서 받는 여성의 고통 (고립, 우울)

※ 토착사회에서의 가정은 living= dwelling = making a home
"a home is neither a nest nor a garage"
- 집과 식구들, 남자와 여자를 서로에게, 서로의 소유물에게 연결시킴(mutual belonging)
- 도무스의 유지와 계승이 중요함, 토지는 도무스(domus)의 소유임(가문의 공유지)
ex) 호머의 <오디세이>: Odysseus & Penelope's bed

공유지 상실의 비극 – 젠더와 자연이라는 두 커먼즈

• 성의 상품화와 자연의 상품화는 같이 일어남
• 젠더와 자연 모두 공유재로서의 특성을 상실하면서 시작됨
• commons, commonner. Commoning -
- 비산업사회에서 민중들이 누리던 다양한 공유권과 그 권리의 행사, 그런 권리를 누리던 자유민을 지칭
- 켈트시절부터 시작된 영국의 오래된 관습적 전통
- 대헌장(마그나카르타 Magna Carta)와 삼림헌장(Charter of Forest)
- 체포, 구금, 고문금지와 같은 자유민의 정치적, 법적 권리는 생계자급의 경제적 토대인 공유지의 사유화를 제한할 때 가능함

인클로저(Enclosure) – 공유지의 사유화

- 종획운동에서 공유지의 공통권을 지키려던 농민여성의 연대

"여성들이 공통권(commons)을 보존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했다.
대담한 대장 도로시는 니더데일의 여성들을 이끌고 쏘프 무어의 종획에 맞섰다.
이삭줍기는 본격적인 추수가 끝난 후에 남은 이삭들을 줍는 오래된 관습이었다.
이 작업은 거의 여성들이 통제하였으며, 추수가 끝난 밭으로 갈 때 여성들의 지도자인
추수의 여왕이 행렬을 이끌었다.
1626-28년의 길링엄 포레스트 반란은 여성들이 이끌었다.
"우리는 여기서 태어났으니 여기서 죽을 것이다"라고 그들은 말했다.
1627년 레스터 포레스트 반란을 지켜본 관찰자는 "몇 명의 무식한 여성들"이 그 반란을
이끌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1632년의 포레스트 오브딘 반란은 신비로운 인물인 레이디 스키밍턴이 이끌었다.
브리스톨에서 대포를 가져왔는데 포수들은 얼버무려 넘기면서
대포를 발사하기를 거부했다. "
- 피터 라인보우, <마그나카르타 선언: 모두를 위한 자유권들과 커먼즈>

젠더와 자연의 상호관계 – 구체적인 장소성과의 결합

- 전통적 의미의 젠더 – 몸의 물질성 + 구체적인 장소성
  -> 자신이 태어난 세계에 붙박은 것임 -> 자급(subsistence)의 토대
  ex) 한나 아렌트 – 장소성을 박탈당하면서 소유(所有)에서 사유(私有)로 전환된다고 봄

  "원래 소유란 세계의 특정 영역에서 자신의 장소를 지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라는 정치 조직체에 소속되는 것, 즉 공적 영역을 함께 구성하는 한 가계의 가장이 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사적으로 소유된 이와 같은 세상의 일부분은 이것을 소유하고 있는 가계와 완전히 동일한 것이어서 어느 한 시민의 추방이란 단순히 그가 지닌 재산의 몰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거처 자체를 실질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뜻하였다."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 > 인간에게서 장소성을 박탈하는 것이 큰 처벌이었음 (거처 없는 인간)

구체적인 물질성, 장소성 없이 자급은 가능한가?

-> 커먼즈 없이 개별적 관계성으로 자본주의에 저항할 수 있는가?

- 해러웨이 (Donna Haraway) ; 가부장제의 재생산과 자본주의의 생산 신화를 비판
  -> "자식 말고 친족을 만들자"(making kin, not babies)
  - 이종적인 타자들과의 새로운 공생관계가 대안 (재생산에서 재생성으로)
  - 지구타자들(Earth others)이 퀴어한 친족 범주임
  - "근접성 없는 친밀감" (intimacy without proximity)

- "n개의 성" (안토니오 네그리)
  ex) 네그리의 <공통체>(*Commonwealth*)에 제시된 대안적 근대성이란?
  - 과거의 억압적 근대성에 맞설 새로운 근대성은 비억압적인 공통체의 탄생으로 가능
  - 맨더빌의 <꿀벌의 우화>는 자본주의적 아이디어: 개인의 악덕이 공익의 원천
  - 네그리는 대안으로 비생산주의적 방식의 관계맺기를 제시
  - 난초와 숫말벌 => 기후위기 시대에 저항할 반란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우화』에 나타난 기후위기와 젠더, 돌봄의 미래

김경옥 (숙명여자대학교 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국문초록〉

옥타비아 버틀러(Octavia E. Butler)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우화』(The Parable of the Sower)는 기후 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된 근미래를 배경으로, 생존과 공동체 재건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포스트아포칼립스 소설이자 기후 SF이다. 소설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기후 위기로 인해 경제적 빈곤과 그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차별의 문제, 인종 살상, 가부장제로 인한 폭력, 여성혐오 등 미래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종말의 세계에 다다랐음을 재현한다. 본 발표는 기후위기가 사회적 불평등과 젠더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질문한다. 또한 주인공 로런 올라미나의 '초공감증후군'과 '대지의 씨앗'이 공동체의 회복과 생존 전략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탐색하면서 돌봄의 미래를 제안한다.

주제어 : 옥타비아 버틀러,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우화』, 기후위기, 젠더불평등, 돌봄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우화』에 나타난 기후위기와 젠더, 돌봄의 미래

김경옥(숙명여대)

순서

1. 들어가며: 생태위기와 기후 소설의 등장
2. 작가 소개
3. 작품 소개
4. 기후변화와 생태계파괴
5.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6. 기후위기와 젠더불평등
7. 돌봄의 미래와 공동체
8. 나가며

1. 들어가며:
생태위기와 기후 소설의 등장

➢ 기후소설

- 환경파괴와 기후 변화시대에 문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 미국의 프리랜서 기자이자 환경운동가인 댄 블룸(Dan Bloom)
  2007년 기후소설(Climate Fiction, Cli-Fi) 개념을 창안
  기후변화의 미래를 상상하면서 재해 후 일어나는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를 탐구
- 킴 스탠리 로빈스(Kim Stanly Robinson), 리처드 파워스(Richard Powers), 파올로 바치갈루피(Paolo Bacigalupi), 옥타비아 버틀러(Octavia E. Butler), 바바라 킹솔버(Barbara Kingsolver)

2. 작가 소개

옥타비아 버틀러 Octavia E. Butler

- 아프리카계 여성SF 작가
- SF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과거와 현재의 인종과 성별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세밀하게 표현한 작가
- 1976년 패턴마스터(Patternmaster) 첫 출판
- 대표작: 킨드레드(Kindred, 1979), 릴리스의 아이들(Lilith's Brood, 1987~1989, 2000)
- 1984년 블러드차일드(Bloodchild)로 네뷸러상과 휴고상, 로커스상을 수상
- 1995년 SF작가로 처음 맥아더 펠로쉽을 받음

➢ 작가와 작품에 대한 평가

- "미국 사회와 국가, 세계적 문제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하는데 유용하다"(Japtok and Jenkins 1)
- "현재에 대한 경고"(warning to the present)(Stillman 15)
- "가부장적 신화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신화, 인종주의 신화, 페미니스트 유토피아 신화에 도전한다"(Miller 337)
- 셸리 스트리비(Shelley Streeby)는 버틀러를 "초기 기후변화 지식인"(2018)으로 조명: 기후 변화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이를 동시대의 정치적 발전과 연결시킨 최초의 디스토피아 소설 중 하나로 평가. 버틀러는 "생태계 붕괴를 촉진하는 파괴적인 신자유주의 정치 및 경제 정책"(Streeby 2018)에 대한 연구를 해옴

✓ 버틀러는 우리 세계에서 지구 온난화는 주요 특징이며 "기후 변화는 전지구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없으며, 현재 진행 중"(Streeby, 2018: 93)이기 때문에 "국가와 세계는 급속하고 명백한 전환기에 있다"(윗글: 93)고 밝혔다.

3. 작품 소개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우화(1993)

은총을 받은 사람의 우화(1998)

➢ **배경**

-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 디스토피아 사회 (2024년에서 2027년까지)
- 미국사회와 수인공 로런의 고향 로블리도(Robledo)
- 자유주의 정책으로 부의 불평등과 빈곤 심화, 혐오와 차별 만연한 포스트아포칼립스 시대

➢ **구성**

- 아프리카계 소녀 로런 오야 올라미나(Lauren Oya Olamina)가 포스트아포칼립스 세계를 경험하고 살아낸 일기 형식의 이야기
- 이야기의 전반부는 로블리도를 중심으로, 후반부는 집과 마을이 불타고 파괴되면서 혼자 살아남은 로런이 길을 떠나 희망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

➢ **스타일**

- 종말 이후의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SF
- 환경파괴와 기후 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자본에 의한 21세기 노예제 비판
- 마약 범죄, 빈곤, 인종차별 등 세상의 결함에 대한 알레고리적 통찰, 미국의 정치와 경제, 사회진반의 문제에 대한 작가의 비판; 마실 물조차 없는 싱횡에서 우주담사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정부대신 기업이 국가를 운영, 민영화된 경찰력 등 비판
- 25장으로 구성. 각 장의 프롤로그는 '대지의 씨앗'의 경전인 『산 자들의 책』(The Books of The Living)에서 인용된 어구로 시작

➢ 줄거리

2024년을 시작으로 갑작스러운 토네이도와 눈 폭풍, 가뭄 등의 기후 변화로 자연환경은 파괴되고 오염된 물과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병들고 죽어가는 종말의 세계가 배경이다. 소설은 18세의 아프리카계 소녀 로런 올라미나의 여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로런은 감리교 목사인 아버지와 새어머니, 동생들과 함께 거대한 장벽이 에워싸고 있는 폐쇄된 주택 단지에 살고 있다. 커뮤니티 밖 외부 세계는 기후위기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부의 불평등과 빈곤이 심화되면서 폭력과 약탈이 성행하는 위험 지대이다. 어느 날 커뮤니티가 무너지고 가족을 잃은 로런은 홀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죽어가는 지구에 대한 대안적 비전으로 "대지의 씨앗"(Earthseed)을 제시한다. '대지의 씨앗'은 인간이 변화의 본질을 받아들이고 "별들 사이에 뿌리를 내는 것"(to take root among the stars)을 목표로 한다. 로런은 자신이 가져온 씨앗과 여행 중에 만난 사람들과 함께 '대지의 씨앗'공동체를 만들어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우리의 삶을 개선하기를 희망한다.

4. 기후변화와 생태계파괴

➢ 자본주의와 산업문명의 확산으로 인류의 자연환경과 생활 패턴의 급격한 변화

- 자본주의는 "사막을 잔디밭과 골프장으로 바꾸고 라스베가스, 라플린, 피닉스 같은 빛과 밤의 전력을 먹는 도시"(Streeby, 2018)를 탄생 ▶지구의 자연은 온실가스와 오염된 먼지로 뒤덮여 있으며 밤하늘의 별은 보이지 않는다.

"*도시의 불빛, 조명, 발전, 성장, 우리가 너무 덥고 가난해서"(5)* 별을 볼 수 없는 상황

- 자본주의는 인간의 노동력과 자연환경을 착취▶환경오염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강화

- 알렉스 캘리니코스Alex Callinicos: "1948-1973년의 장기 호황과 북반구 복지국가의 성장은 경제 위기, 빈곤화, 환경파괴 과정의 자본주의의 역사를 배경"

➢ 기후 변화로 인해 지구의 생태계 파괴, 인류의 삶이 혼란스럽고 불안정해짐

- 물 부족으로 물이 휘발유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는 상황은 환경재난으로 이어짐

물값이 또 올랐다. 오늘 뉴스에서 들었는데 살해당한 물장수가 더 늘었다고 한다. 물장수는 불법 점거자와 거리의 빈민에게 물을 판다.

- 유료 급수장이 생겨나며 물 오염으로 인해 유행성 홍역과 콜레라 등의 전염병 창궐

멕시코만에서 시즌 초반에 큰 폭풍이 불어오고 있다. 이 폭풍은 걸프만 주변을 지나 플로리다에서 텍사스, 멕시코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700명이 넘는다. 한 번의 허리케인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았을까? 농작물 파괴로 인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주리게 될까? 자연이란 그런 것이다. ……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아이들은 더 많이 태어나고,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이 더 많이 자라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언젠가는 우리 모두는 가난해질 것이다(15)

5.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 **2018년 IPCC보고서**: 빈곤층과 같은 취약 계층이 지구 온난화의 결과에 더 많이 노출. 지구 평균 온도 1.5℃ 상승 시 대부분 지역에서 평균 온도가 상승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극한 고온과 호우, 가뭄 증가. 이로 인해 건강, 식량안보, 물 공급 및 경제성장에 대한 위험 증가로 사회취약계층과 토착민, 농어업 종사자 그리고 지역으로는 북극 생태계, 건조지역, 군소 도서국 등이 위험에 노출

- 로블리도는 "한때는 부유하고 초록이 우거지고 장벽이 없는 도시"였지만 지금은 "상어 떼 한테 포위당한 섬"

- 거리의 불법점거자, 부랑자, 마약을 하는 사람들로 주택단지를 둘러싼 장벽없이는 살 수 없는 위험한 도시로 전락. 사회 불안. 집단 학살, 범죄, 공권력 상실

- 부의 불평등과 심화: 부자들은 "큰 총과 개인 군대와 같은 경비대, 최신식의 보안시설" 마약 탐지견과 금속 탐지기, 수화물 제한 규정, 무장 경비원, 알몸 수색"(174) 등의 각종 보호 장치를 이용해 "가장 안전한 장소"(173)인 쇼핑몰에서 자유롭게 쇼핑/ *초라한 주택지. 불탈거나 약탈당한 집, 주정뱅이나 약물중독자, 집없는 가족이 꾀죄죄하고 깡마르고 반쯤 벌거벗은 아이들을 데리고 차지한 집*

- "휘발유보다 몇 배나 비싼 물"과 항상 오르는 식료품 가격→부족한 식량난과 경제적 문제

▶ 공평하지 않은 기후 변화의 피해

- 젊은이들의 실업위기와 경제적 어려움: 로런의 동생 키스(Keith)는 가족과 공동체를 떠나 자립을 원하지만 결국 범죄조직에 연루되어 실해됨

▶ 아프리카계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과 인종차별 문제

➢ 기후 난민과 이주 문제: 물, 식량, 방목지에 대한 경쟁, 갈등

- 에머리: 일본계 아버지와 흑인 어머니를 둔 부채노예제 출신으로 남편이 질병으로 사망하자 거리로 내쫓김
- 반콜레: 범죄자의 약탈로 집과 아내를 잃음
- 그레이슨: 노예출신
- 해리와 자라: 가족과 마을 공동체가 약탈과 방화로 인해 붕괴된 이후 탈출
- 나티비다드: 고용주의 성추행과 폭력으로 탈출

➢ 로스앤젤레스 교외의 평범한 해안가의 작은 도시 올리버(Oliva)

- 기후변화로 인해 "도시의 일부는 바닷물에 침식되거나 깊이 침수되어" "기후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때때로 지진도 일어난다"

- 올리버의 정치인과 시민들은 도시를 기업에 매각, 사유화에 동의 : **다국적 기업 KSF(카키모토, 스탐, 프램턴(kagomoto, Stamm, Frampton)** "안전한 삶과 식량 공급의 보장, 일자리, 태평양 지역과의 전쟁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올리버의 기업도시로의 전환

-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다국적 자본으로 권력 이동

KSF는 담수화 공장의 규모를 거대하게 확장할 예정이다. 올리버의 공장은 많은 담수화 공장 중 첫 번째가 될 것이다. KSF는 이미 비옥하지만 물이 부족한 서남부 지역의 광활한 땅을 헐값에 사들였다. 그 회사는 서남부 지역의 농업과 수력, 태양광, 풍력 에너지 판매망을 장악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올리버는 KSF가 보유한 해안가의 작은 자산일 뿐이다. 하지만 회사는 올리버를 통해 나 보다 몇 살 많은 성실하고 교육 수준도 높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매우 넓어졌다. 그리고 과거에는 공공의 소유였던 토지를 이제는 그들이 통제하게 됐다. 이제 KSF는 사람들이 포기한 땅에서 엄청난 수자원과 전력, 기업형 농장을 소유하게 되었다. (119)

✓ **기후변화로 물부족 사태→ 담수화 공장확보→ 식량시스템 통제→ 공장제 농업기업→ 이산화탄소 대량 발생→ 기후위기 악화**

- 다국적 자본의 경제 식민지, 노동자 착취

- **국가와 자본의 유착**: 2024년에 선출된 대통령 크리스토퍼 찰스 모페스 도너 (Christopher Charles Morpeth Donner)는 "사람들을 다시 일하게 하기 위한"(27) 계획의 일환으로 "노숙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들을 위해 '지나치게 제한적인' **최저임금, 환경 및 근로자 보호법을 중단"**(27)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의 경제성장 우선시 정책과 규제완화에 대한 버틀러의 비판

"사람들에게 음식과 물, 죽을 수 있는 공간만 제공한다면 독성물질에 감염시키고 팔, 다리가 절단되고 병에 걸려도 합법적이라는 말인가"

▶ 전지구적 약탈 시스템에 대한 비판

-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부채 노예제**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새로운 법률에 따라 노동자들은 돈을 빚진 고용주를 떠날 수 없었다. 그들은 임시계약자 또는 재소자 신분으로 빚을 갚아야 했다. 즉, 일을 거부하면 그들은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고 결국에는 고용주에게 넘겨질 수 있다는 뜻이다. 어느 쪽이든, 이러한 부채 노예는 더 적은 임금으로 더 오랜 시간 일하도록 강요받거나, 할당된 작업량을 맞추지 못하면 징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또는 영원히 그들을 필요로 하는 먼 고용주에게 원하든 원치 않든, 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거래 및 판매될 수 있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부모가 죽거나 장애를 입거나 심지어 도주하면 어린아이가 부모의 빚을 갚기 위해 강제로 일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288).

-

6. 기후위기와 젠더불평등

➢ 기후 위기로 인한 여성 차별과 폭력: 경제적 자원부족과 사회 안전망의 붕괴

우리는 뻗어 있는 사람, 길가에서 자고 있는 사람, 막 잠에서 깬 사람을 지나쳤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적어도 세 명은 봤어요……젊고 벌거벗고 지저분한 여자가 우리 앞을 비틀거리며 지나갔어요. 저는 그 여자의 멍한 표정을 보고 그녀가 정신이 나갔거나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강간을 너무 많이 당해서 미쳤을지도 모르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아니면 그냥 약에 취해 있었을 수도 있죠(9)

➢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의 위협

- 성폭력으로 임신한 트레이시(Tracy)- "산전 돌봄이나 임신 중단을 위한 돈이 없어"(33)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현실

- 여성의 마약 중독: 로런의 친엄마, 임신한 여성들도 마약에 중독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모에 의해 매춘 강요(앨리와 질)

-부자집에 하인으로 고용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추행, 성폭력 만연

- 억압적인 가부장제에 뿌리를 둔 위계적이고 이원론적 사고

상류층 남성들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두거나 어린 하녀를 둠으로써 "자신이 남성이라는 것을 증명한다"(37).

리처드 모스(Richard Moss)는 젊은 노숙자 여성을 여러 명 데리고 일부다처제를 유지

- 자본주의로 인한 사회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교육의 부재

- 젠더기반 폭력: 성추행, 성폭행, 매춘

✓ 사회-생태계의 회복력을 유지하기 젠더 다양성 회복

7. 돌봄의 미래와 공동체

➢ "초공감 증후군"(hyperempathy syndrome)

-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또는 그들이 느낀다고 생각하는 감각"(12)을 동일하게 느낌 "약전이자 수치스러운 비밀"(178)로 "기질적 망상 증후군"(organic delusional syndrome)(12)으로 취급받으며 질병 혹은 수치심

-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멸시의 비정상사회를 정상사회로 회복시키는 힘

"어쩌면 정상인지도 몰라"(194) : 해리(Harry)의 말

패트리샤 멜저(Patricia Melzer): 로렌의 초공감을 "타인과의 단절과 소외를 금지하는 물리적 메커니즘"(36)이라고 설명하며 "타인의 세계를 단순히 이해하려는 의지를 넘어 실제로 경험하고 차이점을 건너는 고통스럽고 즐거운 과정을 나타내는 것"(36)이라고 설명

➢ 로런의 변화:

- 타인에 대해 무관심하고 적대적 태도▶ 무의식적 돌봄 윤리

나는 배낭에서 달콤한 배를 꺼내 여자와 아이에게 하나씩 주었다. 이틀 전에 샀는데 남은 거라곤 세 개 뿐이었다. 다른 일행들도 이 모습을 보고 자신들에게 남는 것을 나누기 시작했다. 껍질을 벗긴 호두, 사과, 석류, 오렌지, 무화과 …… 이런저런 소소한 것들을. 우리는 꿀을 조금 넣어 만든 옥수수 빵과 어제 사서 삶아 놓은 달걀을 함께 나눠 먹었다(283)

➢ 돌봄: 상호의존성을 인지하고 포용하는 것을 의미(더 케어 컬렉티브, 2021)

- 실천으로서 돌봄: 개인적 행동의 나열이 아니라, 개인의 도덕적 태도가 함께 하고 발전하는 실천"(헬드, 2017)

➢ 버지니아 헬드(Virginia Held)『돌봄:돌봄윤리』

돌봄(care)

관심갖기(care about)

돌봄은 단순히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젠더, 계급, 인종 그리고 민족의 지배와 위계질서를 대체하는 돌봄 가치와 협력으로 사회 구석구석을 탈바꿈시킬 것을 요구"(헬드, 2017)한다.

"어쩌면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이 악몽에서 벗어나는 치료제일지도 모른다"(257)

- 돌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 모두를 위해 행동한다. 즉, 좋은 돌봄과 돌봄 관계는 돌봄 관계 그 자체의 안녕과 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협력적 안녕을 포함하는 것

➢ 대지의 씨앗(Earthseed)

- 삶의 철학이자 종교이며, 공동체 원리

- "신은 변화이다"(God-is Change)(77)

"신화나 신비주의 또는 마법"(217)을 수반하지 않으며 "나 자신과 타인을 돌보는 것"(care about myself and others)(221)

- 개인과 공동체가 일상 경험의 세계에서 변화를 수행

- 암울한 절망의 과거에 의해 거의 결정된 것처럼 보이는 현재의 순간에 '변화'를 통해 "의미 있는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기반"(Philips 303)을 제공

All that you touch You change	당신은 만지는 모든 것을 바꾼다
All that you change Changes you	당신이 바꾼 모든 것이 당신을 바꾼다
The only lasting truth Is Change	유일하게 변화지 않는 진리는 변화이다
God Is Change	신은 변화이다
Earthseed: The Books of the Living	대지의 씨앗: 신 자들의 책

8. 나가며

➢ 버틀러: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도움은 우리 자신과 시로에게시 나와야 한다"(340)

캠프에서 비탈 아래쪽을 내려다보니 나무와 덤불 사이로 멀리 있는 저수지의 수면이 희미하게 보였다. 세상은 고통스러운 이야기로 가득했다. 때로는 그 이야기 말고 다른 것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나무 사이로 보이는 물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생각하게 된다 (263)

돌봄의 미래는 불평등의 해소와 인종과 계급의 배타적인 인식에서 변화되어야 한다. 지구종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모두 혼혈이며 계급, 성별, 섹슈얼리티 측면에서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인종과 젠더, 계급적으로 소외되었던 이들을 우선시하며 그들을 돌볼 때, 모든 사람이 돌봄을 실천하고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소설은 제시한다. 다원화된 지구종 공동체를 통해 다름을 포용할 때 회복탄력성이 생긴다. 다양성으로 통합된 커뮤니티에서 성장하는 것은 타자에 대한 존중과 유연성, 변화에 대한 개방성을 가질 수 있다. 로런의 '대지의 씨앗'은 과거와 현재의 배타적 폭력을 거부하고 돌봄의 다양성을 전제하고 포용할 때 한 알의 도토리가 커다란 떡갈나무 숲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처럼 가능성과 변화를 가진다.

❖ 참고문헌

- 김 경옥, 『익숙하지만 낯선 여성 SF』(파주: 보고사, 2024).
- 더 케어 컬렉티브, 「돌봄선언: 상호의존의 정치학」(정 소영 옮김)(서울: 니케북스, 2021).
- 버틀러, 옥타비아/콘수엘라 프랜시스, 「옥타비아 버틀러의 말」(이 수현 옮김)(서울: 마음산책, 2023).
- 캘리니코스, 알렉스, 「재난의 시대」(이 수현 옮김)(서울: 책갈피, 2024).
- 헬드, 버지니아, 「돌봄: 돌봄윤리」(김 희강/나 상원 옮김)(서울: 박영사, 2017).
- Butler, Octavia, *Parable of the Sower*(New York: Warner, 1995).
- IPCC, "Summary for Policymakers. In Global Warming of 1.5°C"(2018), https://doi.org/10.1017/9781009157940.001.
- Japtok, Martin and Jerry Rafiki Jenkins. "Introduction: Human Contradictions in Octavia Butler's Work." *Human Contradictions in Octavia Butler's Work*. Ed. Martin Japtok and Jerry Rafiki Jenkins. CA: Palgrave Macmillan, 2020.
- Miller, Jim. "Post-Apocalyptic Hoping: Octavia Butler's Dystopian/Utopian Vision." *Science Fiction Studies* 25.2 (1998): 336-360.
- Melzer, Patricia. ""All That You Touch You Change": Utopian Desire and the Concept of Change in Octavia Butler's *Parable of the Sower* and *Parable of the Talents*." *Femspec* 3.2 (2002): 31-52.
- Streeby, Shelley, *Imaging The Future of Climate Change: World-Making through Science Fiction and Activism*(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8.
- Stillman, Peter G. "Dystopian Critiques, Utopian Possibilities, and Human Purposes in Octavia Butler's *Parables*." *Utopian Studies* 14.1 (2003): 15-35.
- Phillips, Jerry, "The Intuition of the Future: Utopia and Catastrophe in Octavia Butler's *Parable of the Sower*," *NOVEL: A Forum on Fiction, Contemporary African American Fiction and the Politics of Postmodernism* (2002), 299-311쪽.

여성환경연대

‘성인지적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탐색’ 토론문

2024.12.13.

서연화(사라)
여성환경연대(sara@ecofem.or.kr)

여성환경연대

기후위기와 피해와 손실

출처:기후위기 책임 가장 큰 나라는? 미국-중국 ‘네 탓’, 한국 18위(한겨레/ 2022.11.06.)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65998.html

여성환경연대

기후위기와 피해와 손실

출처:기후위기 책임 가장 큰 나라는? 미국-중국 '네 탓', 한국 18위(한겨레/ 2022.11.06.)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65998.html

여성환경연대

기후위기와 피해와 손실

Fig. 1: Climate change-attributed loss of life and damages from extreme weather events.

From: The global costs of extreme weather that are attributable to climate change

- 기후변화는 12억명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지난해 발생한 피해액은 최소 2800억달러(약 378조원)에 달함
- 지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185건의 재난과 기후변화의 연관성을 분석해 폭염, 가뭄, 홍수 등의 기상이변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조사한 결과 시간당 1600만달러(216억원)
- 전체 **피해액 가운데 인명 피해에 따른 비용이 3분의 2를 차지했고 부동산 등의 재산 파괴 등이 나머지 3분의 1을 차지함.**
- 재산피해가 가장 큰 기후 피해 **태풍(65%), 폭염(16%), 홍수와 가뭄(10%)**

언도별 인명피해 관련 기후변화 피해(노란색 그래프)와 전체 피해액 추이(사진=보고서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에 의한 전 세계적 비용')
이미지 및 기사 출처 : 데일리e뉴스(https://www.daily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24)

여성환경연대

비경제적 피해와 손실

- 건강과 웰빙
- 삶의 방식
- 미래세대의 삶
- 문화유적
- 자연과의 연결감
- 생명다양성
- 지속가능한 도구
- 토착 지식

출처: https://climateanalytics.org/comment/non-economic-loss-and-damage-insights-from-the-pacific-islands

여성환경연대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흐름

-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진행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1997년 도쿄의정서 채택 (2005년 발효)
- 2015년 파리협정 채택(2016 발효)
- 2018년 IPCC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여성환경연대

UNFCCC 내 젠더주류화의 움직임

- 2001 | 제7차 당사자총회가 젠더 균형과 여성 참여에 관한 첫 번째 독자적 결정을 채택하고 성평등을 국가적응행동프로그램(National Adaptation Programmes of Action)의 지도원칙으로 받아들임
- 2010 | 제16차 당사자총회는 적응, REDD+ 및 역량형성에 관한 결정문에서 젠더를 인용한 칸쿤합의를 채택. 성평등은 공유된 비전 내 기후행동의 모든 측면에서 중요
- 2011 | 제17차 당사자총회는 젠더적 고려사항이 포함된 재정 및 기술 관련 결정문, 즉 GCF 및 CTCN과 관련된 결정문을 채택
- 2012 | 제18차 당사자총회는 기후변화협약 아래 젠더 균형을 강화하고자 두 번째 독자적 결정문을 채택하고, 젠더를 당사자총회 상설 의제 항목으로 만듦
- 2013 | 제19차 당사자총회는 바르샤바 국제체제(Warsaw International Mechanism)을 채택 (내용에 젠더 분리 데이터 수집 관련 위임사항 포함)
- **2014 | 제20차 당사자총회는 2년제 리마 프로그램을 채택 (젠더 균형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성-반응적 기후정책에 대한 지식과 역량형성을 제공하기 위함)**
- 2015 | 제21차 당사자총회는 파리협정을 채택 (성평등을 전문에 포함하며, 성-반응적 적응 및 역량형성을 요청하는 내용)
- 2016 | 제22차 당사자총회는 리마프로그램의 3년 연장안을 채택
- **2017 | 제23차 당사자총회는 2년제 젠더 액션플랜을 채택**
- 2018 | 제24차 당사자총회는 성-반응성을 여러 번 인용하는 파리이행지침(Paris Implementation Guidelines)을 채택 (국가결정기여(NDCs)와 투명성 결정문 내 젠더에 관한 첫 번째 언급을 포함)
- **2019 | 제25차 당사자총회는 5년제의 강화된 리마프로그램과 그 젠더액션플랜을 채택**

여성환경연대

2014년, 제18차 당사자총회: 리마 프로그램(Lima work programme on Gender)

당사자총회는, (...)

성-반응적 기후정책과 협약 절차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균형 있는 참여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과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과 같은 국제 문서의 규정 사이의 일관성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기후변화 정책의 맥락 안에서 그리고 개별 국가의 상황과 위에 언급된 결정문들을 통한 성-반응적 기후정책에 따른 젠더 균형 및 성평등 증진에 관한 진척이 있었음을, 그리고 유효성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기여로서 협약에 따른 활동과 관련된 모든 목표와 목적을 통해 젠더 주류화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상기 결정문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이룩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국가 대표단의 구성과 공식적 및 비공식적 협상 집단의 의장 활동 및 촉진 활동 등 유엔기후변화협약 절차의 모든 측면에서 여성이 대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에 주목하며,

기후정책의 이행에 관한 의사결정뿐 아니라 적응 및 완화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성-반응적 기후정책을 여전히 더욱 보강하여야 함에 또한 주목**

여성환경연대

2017년, 제23차 당사자총회: 젠더액션플랜(gender action plan)의 수립

당사자총회는, (...)

기후정책의 이행에 관한 의사결정뿐 아니라 적응, 완화 및 관련 이행 수단(재정, 기술 개발 및 이전 및 역량 형성)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성-반응적 기후정책을 여전히 더욱 보강하여야 함에 또한 주목하고,

상기 결정문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이룩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 절차의 모든 측면에서 여성이 대표되어야 할 필요성과 협약에 따른 활동에 있어서 그 유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여로서 모든 유관 목표와 목적을 통해 젠더 주류화를 할 필요성이 있음에 또한 주목**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 이행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사무국의 작업에 젠더 관점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연장된 리마 프로그램(extended Lima work programme on Gender)이 수행한 중요한 역할과 유엔기후변화협약 절차에 따른 젠더 관련 의사결정과 위임 사항의 이행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젠더액션플랜(부록에 포함)이 수행한 역할을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하며,
유엔기후변화협약 절차에 따른 젠더 관련 의사결정 및 위임 사항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젠더액션플랜을 개발하되, 이에 우선순위 분야, 핵심 활동 및 지표, 이행 일정, 책임주체인 핵심 행위자 및 예상 자원 요건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과 그 검토 및 모니터링 절차를 더욱 구체화할 것을 위임한 결정문 21/CP.22의 제27항을 상기

여성환경연대

2019년, 제25차 당사자총회: 강화된 리마 프로그램, 젠더액션플랜

젠더액션플랜: 강화된 젠더액션플랜(enhanced gender action plan)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절차 내 여성의 완전하고 평등하며 의미 있는 참여뿐 아니라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이행과 당사국, 사무국, 국제연합 기관 및 모든 이해관계자의 작업의 모든 수준에 있어서 성-반응적 기후 조치 및 그 일관성 있는 주류화에 관한 지식 및 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목표와 활동을 다섯 개의 우선순위 분야로 나누어 제시한다.

우선순위 분야

가. 역량형성·지식관리·의사소통 : 기후 정책 및 조치에 젠더적 고려사항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것과 리마 프로그램(Lima work programme on Gender)과 그 젠더액션플랜(gender action plan)에 따라 요구되는 조치에 이해 및 전문성을 적용하는 것을 강화하고, 여성 리더십 증진, 성평등 달성 및 효과적인 기후조치 보장에 있어서 성-반응적 기후조치와 그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채택한 활동의 현장지원, 지식공유 및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하기.

나. 젠더 균형·참여·여성 리더십: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절차 내 여성의 완전하고 평등하며 의미 있는 참여를 달성하고 지속하기.

다. 일관성: 젠더 관련 위임사항과 활동의 일관된 이행을 위하여 유엔기후변화협약 기구, 사무국 및 다른 국제연합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작업 안에서 젠더적 고려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보강하기.

라. 성-반응적 이행과 이행수단: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의 이행에 있어서 성평등과 여성의 권한 강화에 대한 존중, 촉진, 및 고려를 보장하기.

마. 모니터링 및 보고: 리마 프로그램 및 그 젠더액션플랜에 따른 젠더 관련 위임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에 대한 추적관찰을 개선하기.

여성환경연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세 가지 주요 과제

- 참여: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전반에서 남성이 과잉대표 되어 있음. 정책결정권에서 여성의 참여율의 향상
- 적응: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변화에서 여성을 포함한 사회경제적인 약자가 잘 적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감축: 기후위기의 가속화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에서 여성이 다양한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여성환경연대

여성운동의 여러 영역에서 다룰 수 있는 쟁점

영역	쟁점
노동	- 정의로운 전환 속 젠더 정의 누락 : 여성노동자 여성의 불안정 노동 돌봄 노동, 성차별한 노동환경, 성차별적 지역노동시장 전환 없이 재생에너지 산업만 논의되는 문제 - 탈탄소화와 디지털화 사라지는 여성 일자리 - 기후위기 대응과 포괄적인 양질의 녹색일자리
돌봄	- 돌봄에 대한 전환 없이 한국판 뉴딜, 기후위기 대응, 코로나19 경력단절여성 대응정책으로 제시하는 저질의 돌봄 일자리 - 여성에게 치우친 돌봄 노동으로 인한 여성의 실업과 정신 건강 악화 -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돌봄 중심의 사회 재구성 방안
젠더 폭력	-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 기후와 재난 상황에서 증가하는 젠더 폭력 문제 대응 - 임시대피소, 쉼터, 난민캠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그로 인한 여성의 자유 제한
주거	- 기후위기는 안전하고 편안한 쉼터의 문제가 중요함. 주거가 불안정한 청년 빈곤층, 여성에게 기후위기는 더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음. - 홈리스 비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열악한 주거환경은 에너지빈곤과도 관련됨. - 농업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 시설은 폭염과 혹한에 특히 문제가 됨. - 세입자는 태양광패널설치, 단열설비 등에 투자하기 어려움.

자료: "성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에 대한 상상"(정은아, 2021) 중 일부 발췌

여성환경연대

국내 기후위기 대응 정책

- 2010년「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
- 2015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 2016년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기후변화 전망, 감축·적응 대책 등 포함하는 20년간의 계획
- 2019년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 2020년 2050 탄소중립 선언
- 2021년「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2023년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발표

여성환경연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국가비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

국가전략

구체적·효율적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이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모든 사회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위기 적응과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중장기 감축목표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달성

2018 727.6백만톤 ➡ 2030 436.6백만톤

부문별 감축정책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 석탄발전 감축 · 원전+재생e↑ · 수요 효율화	· 핵심기술 확보 · 기업지원 · 배출권 고도화	·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 그린리모델링	· 무공해차 보급 · 철도·항공·해운 저탄소화	· 저탄소 농업구조 전환 · 어선 및 시설 저탄소화
폐기물	**수소**	**흡수원**	**CCUS**	**국제감축**
· 지속가능한 생산·소비체계 · 자원 순환 이용 확대	· 청정수소 공급 확대 · 수소활용 생태계 강화	· 산림순환경영 · 내륙·연안습지 복원 및 보호	· 법령, 저장소 등 인프라 마련 · 기술 확보·상용화 R&D	· 민관합동 지원 플랫폼 · 부문별 사업 발굴 및 이행

이행기반 강화정책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 기후감시·정보제공 · 극한기후 대응 · 취약계층 지원	· 녹색기술 육성 · 녹색산업 성장 · 녹색 재정·금융 확대	·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 탄소중립 전환 영향 집단 지원
지역주도	**인력양성·인식제고**	**국제협력**
· 지자체 탄소중립 기반 구축 · 지역 기후대응 역량 강화 · 중앙-지역 상호 협력 활성화	· 저탄소·미래분야 인력 양성 · 탄소중립·녹색생활 교육 · 범국민 실천운동 확산	· 기후대응 국제입지 강화 · 그린 ODA 확대

범정부 상설 협의체 + 이행점검·평가체계 운영

여성환경연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

2020헌마389, 2021헌마1264, 2022헌마854, 2023헌마846(병합)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등

[선 고]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①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도록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제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이 법률조항은 2026. 2. 28.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며[헌법불합치(계속 적용), 전원일치], ② 위 감축비율을 '40퍼센트'로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기각, 전원일치], ③ 정부가 2023. 4. 11. 수립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중 2023년부터 2030년까지의 부문별 및 연도별 배출·흡수량의 목표치를 설정한 'Ⅴ. 중장기 감축 목표' 가운데 '나. 부문별 감축목표' 부분 및 '다. 연도별 감축목표' 부분(이하 '이 사건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며[기각, 재판관 4(기각): 5(위헌확인)] ④ 나머지 심판청구와 공동심판참가 및 보조참가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각하, 전원일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8월 29일 헌법재판소 기후소송 판결

여성환경연대

!기후정의는 젠더정의!

- 젠더부정의와 기후부정의는 연결되어 있음
- 이미 성차별적인 구조 에서 기후위기는 성차별을 더욱 더 악화시킴
-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사회구조 속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으며, 성별, 장애, 직업, 소득, 거주형태를 이유로 피해가 불어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적응책이 마련되어야 함
- 성평등과 기후정의는 함께 가야할 의제

여성환경연대

페미니스트 기후정의 선언

- 조사 목적: 여성, 청년, 성소수자, 비인간동물을 모두 포함한 페미니즘의 관점이 기후정의 담론의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총 11개의 여성/청년/동물권 단체와 작성

"우리는 기후위기의 해법으로 '탈성장 돌봄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지구를 파헤치고 오염시키는 무한한 상품 생산과 경제 성장이 아니라, 유한한 필요와 풍요를 평등하게 나누는 '탈성장 사회'를 지향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돌봄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것은 기존의 성별 분업에서 비롯된 '돌봄의 여성화' 탈피, 연령과 성별, 국적에 상관 없이 누구나 돌보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확대입니다. 또한 인간, 비인간종을 모두 포함한 공동체와 지구를 위한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의 변화, 상호의존성에 기반한 사회로의 이행입니다."

여성환경연대

페미니스트 기후정의 선언

1. 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하라.
2.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라.
3. 기후대응 정책 전반에서 젠더관점을 반영하라.
4. 여성·지역민 등 사회적 소수자가 주체가 되는 탈중앙집권적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하라.
5. 젠더 관점의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한다.
6. 인간과 비인간 동물 모두가 공존하는 종평등한 사회로 전환하라.
7. 핵발전, 석탄발전 계획을 폐기하고 근본적인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하라.
8. 주거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하라.
9. 여성 농민·농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식량주권을 확보하라.
10.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이행하라.

여성환경연대

페미니스트 기후정의 선언 이후 과제

01 **사회 전반에 필요성 확산**
-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젠더통합적 기후위기 대응
- 젠더통합적인 관점의 기후위기 대책 필요성 합의

02 **성평등X기후정의 의제 발굴**
- 기후정의와 성평등이 교차하는 지점 가시화
- "기후위기"를 기본 조건으로 둔 사회문제 고민, 대책 마련
- 산업전환, 돌봄, 탈성장/ 기후재난 피해 대책, 기후난민 등

03 **기후위기 대응 정책 개입**
- 역행하는 기후/환경·여성 정치, 현 정권의 운동 무력화
- 정부, 의회, 기업 등 성평등한 기후정치를 위한 개입 필요

04 **성평등X기후정의 네트워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지기반 마련
- 성평등한 기후정의 요구 세력화

"여성과 환경의 교차점에서 행동하다"
여성환경연대

감사합니다.

여성환경연대 서연화(사라)
(sara@ecofem.or.kr)

"에코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기후위기와 젠더 불평등의 기원: 커먼즈에 대하여" 토론문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면서

- 본 발표는 "기후변화와 젠더: 도전과 대응 " 학술대회 대주제하에 기후위기와 젠더불평등의 기원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음
- 박혜영 교수님은 에코페미니즘 관점에 기반하여 기후위기와 젠더불평등이 발생한 원인과 구조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commons 개념을 활용함
- 본격적인 학술적 논의라기 보다는, 내용에 대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토론을 전개하고자 함

1. 기후위기와 기후정의, 젠더정의

- 서두에 인구가 늘면서 탄소배출량도 함께 늘어남을 언급하면서, 거기에 소득분위별 책임이 얼마나 있는가를 그림으로 보여줌. 상위 10%가 소비를 통해 탄소배출의 약50%를 책임지고, 반면 하위 50%는 10% 정도임. 이것을 통해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가 자본주의 최상위 국가 또는 상위계층에 의해 비롯되었음을 확인함

- 그러나 기후위기의 결과는 최상위층이 아니라 최하위층의 위기로 현실화됨. 기후위기는 여성에게 더 가혹. 따라서 기후위기 문제는 기후정의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1. 기후위기와 기후정의, 젠더정의

- 발표자는 기후위기는 자본주의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풀어가는 방식을 에코이즘에 기반함. "탄소인간에서 퇴비인간 되기"

- 생태계에 정의로운 경제성장은 없으며, 경제성장으로 젠더불평등은 사라지지 않고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봄. 마리아 미즈가 얘기한대로 가부장제는 전 지구적 영역으로 확장되며 남성적 시스템의 보편화가 이루어지기 때문

- '지속가능한 성장(SDG)' 모두 거부하고, 자급자족 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가? 제3세계여성의 불평등은 어떻게 해결하나?

2. 공유재로서의 젠더(gender), 사유화된 섹스(sex)

- 발표자는 그동안 페미니즘안에서 통용되던 사회문화적 성차로서의 gender와 생물학적 성차로의 sex라는 개념과는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음. 버틀러의 젠더수행과 유동화 개념에 대해서도 비판적임

- 발표에 의하면, 경제성장은 토착젠더의 파괴와 경제적 성(economic sex)의 착취로 가능하다고 봄. 이때 토착젠더란, 지금과 같이 남성과 여성이 권력과 자원을 두고 반목하고 갈등하고 존재가 아니라, 자급을 위한 양성간 협력에 토대를 두고 공유지인 자연을 전제하고 있음.

2. 공유재로서의 젠더(gender), 사유화된 섹스(sex)

- 토착젠더에서는 여성들간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공유재로서의 젠더노동 없이는 남자는 살아 남을 수 없었다고 함. 또 여성과 남성집단간 다른 일에서의 협업 공존이 이루어졌음.

- 반면 산업사회의 성별분업노동은 공유적 젠더노동에서 사유화된 섹스노동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가시적인 가내경제 노동에서 보이지 않는 그림자노동으로의 변화를 의미함. 즉 원래 세계에서의 장소성을 박탈당하면서 자연(땅)도 가계의 공통적 삶을 위한 터전에서 축적가능한 부로, 젠더도 공유재에서 사유화된 섹스로 전환함. 가정주부와 고립노동의 고통..

2. 공유재로서의 젠더(gender), 사유화된 섹스(sex)

- 이 논의에서 빠진 것은 경제적 권리에 못지 않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의 확보임. '토착젠더' 개념에서는 상당히 여성의 집단적 권리가 보장된 것으로 전제하고 있음. 그 실제적 예로 산업사회 이전에 민중이 누리던 다양한 공유권과 권리의 행사, 그 권리를 누리던 자유민을 상정하고 있음.

- 그런데 산업사회 이전에 자연(토지, 땅, 노동)에 대한 공유권을 실제 가졌다고 볼 수 있나? 산업사회의 도래와 함께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의 역사도 함께 발달해 옴. 초기 남성에게만 한정되었던 시민권이 여성에게 확대되는 과정도 간과할 수 없음.

2. 공유재로서의 젠더(gender), 사유화된 섹스(sex)

- 산업사회 이전의 공유권은 어떻게 발화되었는지? 상상력의 부재인지 산업사회 이전의 자연, 젠더 공유권의 실체에 대한 의구심이 듦

- 젠더와 자연이라는 두 커먼즈(commons, 공유지)가 상실됨에는 산업사회, 더 구체적으로 탐욕이 멈추지 않는 자본주의가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지만, 모든 원인의 원천을 자본주의 생산양식으로 환원하는 것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자본주의 속 작동하는 가부장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더 결합할 수 있다면 좋을 것으로 보임.

3. 비산업사회 공유재로서의 젠더와 자연?

- 산업자본주의 시대 이전에는 젠더와 자연 모두가 공유재(commons)로서 존재했지만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그 공유재적 특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봄. 이로 인해 소유에서 사유로, 평등에서 불평등으로 전환하였다고 진단함. 이와 같은 진단은 비산업사회에 대한 이상주의적 접근으로 보임. (자본주의와 함께 출현한 민주주의 Democracy는 시민개인의 출현을 가능케함)

- 통상 산업자본주의 시대 이전은 봉건제 사회였음. 봉건제 사회에서 자연은 영토전쟁을 위한 벌목과 방화가 존재했음. 전쟁이 끝나면 많은 농토와 삼림이 약탈되었고, 노예 차출 등 인간약탈

3. 비산업사회 공유재로서의 젠더와 자연?

- 또 발표에 의하면 비산업사회에서, 여성들이 공동체내 다른 여성과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공유노동을 수행함으로써, 자본주의 시대처럼 고독하고 갇힌 고립노동이 아니라 하고 있음. 이것은 산업사회 이전의 생산양식에 기반해 볼 때 사실로 보임.

- 그러나 봉건제 사회에서는 일부 귀족들을 제외한 많은 민중(농노)들은 자신만의 가정을 온전하게 꾸리지 못했고, 함께 모여 경작하고, 함께 의식주 생활을 하는 방식으로 삶을 영위하였음. 만일 비서구권 국가에서의 공유노동 기반일 경우에도, 그것은 농업경제라는 특성에 연유한 것으로 보임.

3. 비산업사회 공유재로서의 젠더와 자연

- 비산업사회에서 여성이 하는 젠더노동(젖을 짜거나 버터, 밀크, 달걀, 빨래, 식사준비)등의 자급자족정 성격을 띄고 보이기는 했으나(non-shadow work), 이것이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고 자율적인 삶의 기반위에 작동되었는지는 모르겠음. 이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

- 산업사회 가정은 젠더부재의 시공간으로 묘사. 토착사회에서의 가정(living, dwelling, home)이라 했는데, 그 원형을 어디서 찾을 수 있나?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토착사회의 원형은 어떻게 찾아지나? 완전한 체제의 전환?

감 사 합 니 다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우화』에 나타난 기후위기와 젠더, 돌봄의 미래”에 대한 토론

이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

1. 기후소설은 테크놀로지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 이 질문은 옥타비아 버틀러뿐 아니라 버틀러의 소설을 독해하는 발표자에게도 향한다.
- 반다나 시바 등 에코페미니스트들은 “자연으로 돌아가자” 또는 “자급의 삶”의 논의를 전개하면서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양극화와 더불러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것으 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발표자의 분석에 따르면 옥타비아의 소설에서도 기술은 착취를 일삼는 자본주의 기업을 건설하거나 특수한 계층을 위한 행성 식민지화와 연결된다.
- 그러나 로지 브라이도티와 같은 포스트휴먼 페미니스트는 이윤을 위해 다른 생명을 조작하면서 육체적인 것을 부정하는 트랜스휴먼과 자신의 비판적 포스트휴먼을 구분하고 있으며, 비판적 포스트휴먼 페미니즘은 기술과 친연적일 수 있음을 주장한다.
- 도나 해러웨이 역시 테크놀로지를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며, <카밀의 이야기>와 같은 SF에서는 왕나비의 멸종을 막기 위해 더듬이를 이식하는 세계를 그린다.
- 그렇다면 독타비아 버틀러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우화>>에서 테크놀로지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발표자의 견해 역시 듣고 싶다.

2. 기후위기가 계급 및 젠더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전망은 변화를 향한 실천을 오히려 방해하지 않을까?

- 가부장 자본주의의가 너무나 강력해서 모든 세계를 집어삼킬 것이라는 전망은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의해 가장 많이 주장되었다. 그러나 J.K.깁슨-그레이엄과 같은 여성주의 정치경제학자들은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러한 믿음이 가부장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상대를 너무 커다랗고 강력한 괴물로 묘시했던 맑스주의자들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도전보다 회의주의나 비관주의 나아가 우울증에 빠지기 일쑤였다고 본다.
- 옥타비아 버틀러 역시 가부장적 다국적 자본주의와 결탁되어 나타나는 기후위기의 시대를 거대한 자본주의 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독점적 국가 간의 결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식의 SF는 그저 공포를 소비하는 컨텐츠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만으로 변화를 위한 실천의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없다.
- 거대한 구조 앞에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만이라도 '부채 노예'가 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3. 로런이 일구는 돌봄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어떻게 다름 아닌 '로런'이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가?

- 발표자는 더케어 컬렉티브의 선언문을 인용하면서 돌봄이 "상호의존성을 인지하고 포용하는 것 " 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헬드를 인용하면서 "돌봄은 단순히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젠더, 계급, 인종 그리고 민족의 지배와 위계질서를 대체하는 돌봄 가치와 협력으로 사회 구석구석을 틸바꿈시킬 것을 요구'(헬드, 2017)한다."고 주장한다.
- 앞서도 질문했듯이 토론자는 다국적 가부장 자본주의를 강력한 것으로 묘사하는 한, 사람들이 돌봄사회로의 전환을 의지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우리는 초월자가 아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의 관습에 물든 몸으로 살아간다. 그러니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폭력을 저지른다. 이는 소설에서도 나타나듯 부자이든 빈자이든 마찬가지다.
- 그렇다면 어떻게 로런은 다른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가? 그가 여성이기 때문에, 소위 그가 "구성적 외부"(버틀러)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소수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가?

4. '초공감 증후군' 설명에 대한 유감

- "초공감 증후군"(hyperempathy syndrome) 에 대해 옥타비아 버틀러는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또는 그들이 느낀다고 생각하는 감각"(12)을 동일하게 느끼는 것으로 표현한다. 발표자는 패트리샤 멜저와 함께 이를 "'타인의 세계를 단순히 이해하려는 의지를 넘어 실제로 경험하고 차이점을 건너는 고통스럽고 즐거운 과정을 나타내는 것'(36)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 그러나 공감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캐롤 길리건 등의 이론을 참고하면서 공-감을 타자의 차이에 민감하게 응답하면서 서로를 겪는 것으로 설명해 온 토론자에게는 조금 불편하다. 왜냐하면 공감에 대한 이러한 설명방식은 차이를 드러내기보다 타자와의 동일시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 물론 발표자는 이러한 공감과정을 통해 구성원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변화해간다는 설명을 덧붙인다. 하지만 동일시로서의 공감은 변화를 이끌기보다 차이의 소멸을 결과하는 것이 아닐까?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정기학술대회

기후변화와 젠더 : 도전과 대응

세션 2 기후변화와 젠더에 대한 도전과 대응방안

좌장 : 송아영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의 젠더 주류화와 심화 방향성

- 발표 : 오채운 ·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에코페미니즘으로 본 여성들의 기후위기대응 실천사례와 함의

- 발표 : 이안소영 ·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다종 간 관계성에 기반한 여성주의 생태시민성의 모색

- 발표 : 김효정 ·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전임연구원

토론

- 안영환 ·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
- 이정필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 이상은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의 젠더 주류화와 심화 방향성

오채운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국문초록〉

젠더는 남성과 여성 간의 생물학적 차이 자체 보다도 이를 둘러싼 사회 및 문화적 관행, 관계, 조직 그리고 제도가 남성과 여성간의 차별에 미치는 영향에 더 초점을 둔다. 이러한 젠더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에 고려될 수 있는 관점이다. 이러한 젠더에 대한 관점은 '기후변화' 분야에도 예외는 아니며, 더 많은 관심이 주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 영향에 '취약한 그룹'에 '여성'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부정적 영향과 대응 방안을 경험하고 해당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이해하고 토착지식을 보유한 '여성'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역량있는 주체'로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평등'을 지향하고, 이를 위한 전략적 과정으로 '젠더 주류화'가 도입될 수 있다. 젠더 주류화는 계획된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 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의미를 평가하는, 즉 젠더 관점을 고려한다.

이에, 동 연구는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수립된 국제제도인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젠더 관점을 고려하는 '젠더 주류화' 정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구체화되었는지 살펴본다. 특히, 2014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0차 당사국에서 채택된 '젠더에 관한 리마 업무 프로그램(Lima Work programe on Gender)'에 대해서 살펴본다. 또한, 2017년 제2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젠더 행동 계획(Gender Action Plan)'과 2023년 제27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젠더 행동 계획 개정안'을 살펴본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의 구성기구(constituted bodies)와 당사국들이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그리고 유엔기후변화협약 밖의 유엔기구들이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개괄한다.

이를 토대로,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의 젠더 주류화 규칙에 대해 구성기구와 당사국들의 대응 방향

을 정리하고 이의 의미를 고찰한다. 더 나아가, 기후변화 분야의 젠더 주류화가 심화됨에 따라, 이에 따라 기후변화 정책 및 사업화에 특화된 젠더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과 젠더 주류화 인식도 제고 및 관련 교육에 대한 의미를 고찰한다.

주제어 : 젠더평등, 기후변화, 젠더 주류화, 유엔기후변화협약, 젠더 전문가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 연구원]
- 정기 학술 대회-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의 젠더 주류화와 심화 방향성

2024.12.13(금)

오 채 운 책임연구원

국 가 녹 색 기 술 연 구 소

아젠다

국가녹색기술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GREEN TECHNOLOGY

I. 젠더와 젠더 주류화

II.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의 젠더 주류화

IV. 마무리

2

I. 젠더와 젠더 주류화

국가녹색기술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GREEN TECHNOLOGY

■ 젠더(Gender)란?

남성과 여성 간의 생물학적 차이를 둘러싼,
사회 및 문화적 관행, 관계, 조직, 그리고 제도

■ 기후변화와 젠더

원인	영향	영향 수준	여성에 대한 관점
기후변화	인간 및 자연 시스템에 대한 부정적 영향	시스템 내 개체마다 영향 수준의 차별화	❶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는 취약그룹 중 하나 ❷기후변화 피해와 대응방안을 경험하고, 지역과 문화에 기반한 전문성과 토착지식을 보유한 역량있는 주체

3

I. 젠더와 젠더 주류화

국가녹색기술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GREEN TECHNOLOGY

■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 해결의 한 행동 방향: 성평등 지향

■ 성평등 달성 방식/수단: 젠더 주류화

전략적 프로세스		목표
젠더 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 과정	젠더 평등 (Gender equality)

모든 분야 및 모든 수준에서 계획된 어떠한 행동에서든 여성과 남성의 의미를 평가하는 프로세스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자원/기회/보상에 대한 권리와 특혜를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공유해야 한다는 규범적이고 공통된 가치

4

II.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의 젠더 주류화

국가녹색기술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GREEN TECHNOLOGY

■ 유엔기후변화협약

인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 시스템의 위험한 간섭을 방지하여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92년 채택된 유엔(UN) 기반의 포괄적인 국제제도

■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젠더 주류화를 위한 근거: 북경 선언문 (1995, 제4차 유엔 여성대회)

- 성평등 관련 12개 분야에 대한 행동 방향
- 이중 '환경' 분야에 대해 3가지 전략 행동

❶	환경 관련 의사결정 과정의 모든 레벨에 여성의 참여 확대
❷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에 젠더 관점을 통합
❸	개발·환경 정책의 여성에 대한 영향 평가 체계를 강화 또는 수립

5

II.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의 젠더 주류화

국가녹색기술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GREEN TECHNOLOGY

■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의 젠더 주류화 정책

- (2001, 제7차 당사국총회)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의해 설립된 사무국, 메커니즘, 위원회 등 산하 조직의 기후변화 정책 수립 및 도입 과정에 여성의 참여 및 대표성을 강화할 것을 권고

- (2010, 제16차 당사국총회)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노력에 여성과 원주민 등 취약계층의 상황을 주목할 것을 장려

- (2012, 제18차 당사국총회)

성-반응적인(gender-responsive) 기후정책 수립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모든 절차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

- (2014, 제20차 당사국총회)

젠더에 관한 리마 프로그램(Lima Work Programme on Gender)을 채택

6

II.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의 젠더 주류화

국가녹색기술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GREEN TECHNOLOGY

[젠더에 관한 리마 프로그램]

❶ 이전의 결정 사항은 여성의 '참여 ' 와 '대표성 ' 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라면,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모든 절차(협상 포함)에 젠더 주류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요구

❶ 성-인지적(gender-sensitive) 접근법을 도모하며, 성-반응적(gender-responsive) 기후정책 달성 결정

(성-인지적 접근법)

젠더의 규범·역할·관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접근법

→

(성-반응적 접근법)

젠더 불균형을 초래한 규범·역할·관계를 분석하고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여 해결안을 모색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접근법

7

II.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의 젠더 주류화

국가녹색기술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GREEN TECHNOLOGY

- (2017, 제23차 당사국총회) 젠더 행동 계획 (Gender Action Plan) 채택
  - · 5대 우선순위 분야 (및 분야별 활동)

❶	(역량배양, 지식 공유, 커뮤니케이션) 젠더 고려사항의 통합에 대한 이해/전문성 제고
❷	(젠더 균형, 참여, 여성리더십) UNFCCC 프로세스에서 여성의 완전/동등/의미있는 참여
❸	(일관성) UNFCCC 내부 및 외부(유엔기후 및 이해관계자) 업무의 젠더 고려사항 통합
❹	(성-반응적 이행과 이행수단) 협약/파리협정 이행에서 성평등 및 여성 권한부여 증진
❺	(모니터링 및 보고) 협약 하에서 젠더 관련 의무사항의 이행 추적 및 보고 증진

- (2019, 제25차 당사국총회) 강화된(enhanced) 리마 프로그램 및 젠더 행동 계획 채택
- (2023, 제27차 당사국총회) 젠더 행동 계획 개정안 채택

8

II.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의 젠더 주류화

국가녹색기술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GREEN TECHNOLOGY

[젠더 행동 계획 개정안]

❶ (역량배양, 지식 공유, 커뮤니케이션)

① 국가 기후변화 정책·계획·전략·행동*의 수립·모니터링·이행·검토에 젠더 관점을 주류화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이해관계자를 위한 역량 강화 노력 강화

** 국가결정기여(NDC), 국가적응계획, 국가보고서 포함*

② 국가 젠더 및 기후변화 포컬 포인트 기관의 역할과 업무를 논의 및 명확화

③ 기후변화 관점에서 성별로 세분화(sex-disaggregated)된 데이터화 젠더 분석을 수집·분석·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 및 다른 관련 이해관계자 역량 제고

④ 기후변화의 남성·여성에 대한 다른 영향과 변화 주체이자 기회 측면에서의 여성 역할에 대한 증거 기반과 이해 제고

⑤ 젠더에 대한 리마 작업프로그램 이행에 대해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웹 리소스, 그리고 혁신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 사용 촉진

❷ (젠더 균형, 참여, 여성리더십)

① 유엔기후변화협약 절차상, 여성 협상 대표단의 리더쉽 및 협상 역량강화 이니셔티브 추진

② 유엔기후변화협약 회의에 국가 대표단의 여성의 동등한 참여 지원을 위한 여행 기금 추진

③ 지역커뮤니티 및 원주민 플랫폼 촉진 작업그룹을 초대하여, 기후정책 및 행동에서 지역주민 및 원주민 여성의 효과적 참여 논의를 위한 대화체 협력 및 주최

9

II.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의 젠더 주류화

국가녹색기술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GREEN TECHNOLOGY

❸ (일관성)

① 협약 구성기구 위원들에게 젠더 관련 의무사항 그리고 해당 기구 업무의 젠더 관련성 소개

② 젠더 관점의 업무 통합 강화 방안에 대해 구성기구 의장단들 간의 의견 및 모범사례 교환 촉진

③ 협약/파리협정 부속기구와 다른 유엔 기구들의 젠더 관점을 고려하는 작업 간의 조정 강화

④ 당사국과 유엔기후변화협약 구성기구가 강화된 리마프로그램과 젠더행동계획의 이행을 지원

❹ (성-반응적 이행과 이행수단)

① 젠더 예산 관련 경험 공유 및 역량배양 지원
(성-반응적 기후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 예산에 성-반응적 예산 포함 등)

② 기후 정책·계획·전략/행동에 젠더 통합의 촉진/강화에 필요한 재정 및 기술 지원 인식 제고

③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젠더 반응적 기술 활용 촉진

④ 젠더 및 기후 관련 정보 및 전문성에 대한 부문별 정보 수집

⑤ 여성 그룹 및 국가 여성/젠더 관련 기관들이 기후 정책·계획·전략·행동을 개발, 이행 및 갱신

⑥ 당사국들이 젠더를 국가 기후 정책·계획·전략·행동에 통합한 교훈에 대한 정보 공유

⑦ 성별로 세분화한 데이터를 젠더 분석에 활용 제고

❺ (모니터링 및 보고)

①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준비하는 연례 젠더 구성 보고서(annual gender composition report)와 격년 종합 보고서 차원에서, 여성의 리더십 지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 강화

② 협약 하에서 당사국들의 성-반응적 기후 정책·계획·전략·행동의 이행 모니터링 및 보고

③ 젠더에 관한 리마 프로그램과 젠더행동계획의 검토 지원

④ 개도국의 젠더행동계획 이행 보고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인식 제고

10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RESEARCH INSTITUTE OF ASIAN WOMEN

II.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의 젠더 주류화

국가녹색기술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GREEN TECHNOLOGY

■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의 '구성기구': 젠더 주류화 규칙의 수직적 적용

적응위원회 ('19.8)	적응위원회 업무에 젠더 관점 주류화 작업계획 (Mainstreaming a gender perspective into the work of the Adaptation Committee (Workplan))
적응 기금 ('16.3 & '21.3)	- 젠더 정책 및 행동 계획(Gender Policy and Action Plan) - 젠더 정책 및 행동 계획 갱신 (Updated Gender Policy and Gender Action Plan)
기후기술센터 네트워크	- 젠더 주류화 툴(Gender Mainstreaming Tool) - CTCN 젠더 정책 및 행동 계획 2019-2022 - CTCN 젠더 정책 및 행동 계획 2023-2027 - 젠더 평가 및 행동 계획(GAAP, Gender Assessment and Action Plan)
녹색기후기금	- 젠더 정책 및 행동 계획 2015-2017 - 젠더평등·사회참여 정책·액션플랜 - 갱신된 젠더 정책 및 행동 계획 2020-2023

11

II.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의 젠더 주류화

국가녹색기술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GREEN TECHNOLOGY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❶ 개도국에 대한 기후기술 '기술지원'에 젠더 주류화

- (기술지원)
  - · (개도국) 기술지원 요청서 작성 시 '젠더 ' 고려사항 포함
  - · (기술지원 제공 사업자)
    - → 사업 기획 및 이행 차원에서 '젠더 평가 및 행동 계획'을 작성
    - → 사업 전체 예산 중 5%를 젠더 주류화 활동에 배분
    - → 사업 종료 후, 종료 보고서에 젠더 관련 사항 보고
  - · (사무국) 기술지원 관련 '부문별' 젠더 주류화 지침 개발중

❷ 젠더 관련 전문가 풀 조성 및 젠더 전문가 자문/협력 증진 도모

❸ 기술지원 부문별 '젠더와 기후기술 ' 에 초점을 맞춘 웨비나 또는 교육 개최

12

II.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의 젠더 주류화

국가녹색기술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GREEN TECHNOLOGY

■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의 '당사국': 젠더 주류화 규칙의 수직적 적용 & 수평적 확산

국가 기후변화 정책·계획·전략·행동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에 젠더 관점을 고려하도록 촉구

국가 젠더 및 기후변화 포컬포인트(focal point)를 지정하고 지원을 제공하도록 권고

유엔기후변화협약 프로세스 상에서 국가들이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로 예를 들면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공약이 담긴 국가결정기여(NDC), 국가적응계획(NAP), 국가의 기후행동 이행 현황을 추적하고 모니터링하여 작성한 국가보고서(NC) 등에 젠더 주류화 노력을 포함

강화된 리마프로그램과 젠더행동계획에 포함된 행동과 이행을 지원하도록 촉구 & 2024년 7월 31일까지 젠더행동계획의 이행과 관련된 진척사항을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작성해서 제출

■ 유엔기후변화협약 밖의 '유엔 기구': 젠더 주류화 규칙의 수평적 확산

다른 유엔 관련 기구들의 젠더 관점을 고려하고 각기 수행하는 작업 간의 조정을 강화

13

III. 마무리

국가녹색기술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GREEN TECHNOLOGY

■ 젠더 주류화 규칙

-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에서 규칙의 수립 (리마 프로그램 및 젠더 액션 플랜)
- 협약 하의 '구성기구'를 중심으로 젠더 주류화 적용
  - · 구성기구를 활용한 기후행동을 하고자 하는 '당사국'들에게 간접적으로 확산
- 당사국들을 대상으로 한 권고사항
  - · 눈에 띄는 규칙 적용 및 이행 활동이 부재
  - · 선진국들은 젠더 주류화가 이미 많이 진행 (기후변화 분야에도 예외 X)
  - · 우리나라 및 개도국

■ 젠더 주류화에 대한 교육 및 적용 전문가 필요

- '기후변화' 정책 및 사업화에 특화된 젠더 전문가
- 인식도 제고와 관련 교육

14

감사합니다

에코페미니즘으로 본 여성들의 기후위기대응 실천사례와 함의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국문초록〉

여성과 기후위기를 연결한다는 것, 젠더감응적인 기후대책을 짜고, 에코페미니스트 관점에서 기후위기 시대를 건너는 사회 전환을 구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실천되고 있을까? 본 발표는 이 질문과 관련하여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자급적 관점, 상호의존성, 교차성, 공생과 돌봄의 정치 등의 개념과 접근을 조사하며, 국내외 여성들이 기후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다수 페미니스트들은 기후 문제에 젠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기후변화의 원인, 영향, 대응이라는 3가지 측면을 제시한다. 에코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은 상품생산과 임금노동만을 쓸모 있는 노동으로 경제적 가치화하고 돌봄을 폄하하는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소비자본주의를 비판한다. 이들은 자급적 관점(생계적 관점)을 전환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교차적 접근이나 퀴어 포스트휴머니즘과 '페미니즘 생태시민권을 주장한다. 한편, 국외 여성단체들은 글로벌 기후정치에 개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모니터링 툴과 도구를 개발하고, 돌봄이 이미 저탄소 분야이고 돌봄에 대한 투자가 성 불평등을 다루는 데 핵심임을 주장하며 국가 재정을 분석하고, 공간 민주주의와 다종의 공생이 피어나는 도시를 새롭게 구축하고 지역공동체를 디자인한다.

'실천하는 에코페미니스트들의 플랫폼' 여성환경연대는 '기후정의 젠더정의' '성평등 없이 기후정의 없다'는 슬로건 아래 '여성X기후위기' 정책제안집 제작, 기후재난을 주제로 한 온라인 갤러리 운영과 세대별 기후우울 글쓰기 워크샵 진행, 기후위기 피해 실태조사, 여성 환경 동물권 청소년 주거 장애인권 활동을 하는 11개 단체와 페미니스트 기후위기 공동선언문 발표 등을 했다. 올해는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의 성주류화 방안 연구를 통해 시장 영역의 탄소감축 배출과 성평등을 잇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고, 여성들의 기후위기대응 실천사례를 조사했다. 이러한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기후위기 대응실천 외에도 다종의 몸을 횡단하는 화학물질, 상호교환되는 지구의 위험을 감시하기 위한 환경보건운동과 플라스틱 생산·소비·폐기 감축 등의 실천을 오랫동안 이어나가고 있다.

이상의 에코페미니스트 연구와 실천을 통해 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젠더 불평등은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한 취약성을 심화시키고, 결과적으로 힘들게 얻은 성평등의 결과를 위태롭게 한다. 기후위기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기후대응 정책과 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페미니스트 기후정의는 교차성과 상호의존성에 기초한다.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연과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무급노동의 가치를 재의미화하고, 이를 통해 현재의 성장과 발전 위주의 사회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전환과 대안책을 마련하는 것이 기후위기와 다층적인 불평등을 제거할 수 있는 해법이다. 이는 다종 간의 정의와 연대, 탈성장 돌봄중심 사회, 기후돌봄 정치로 연결된다.

주제어 : 에코페미니즘, 기후정의 젠더정의, 상호의존성, 교차성, 탈성장돌봄사회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원 2024정기학술대회

에코페미니즘으로 본 여성들의 기후위기대응 실천사례와 함의 : 여성환경연대 활동을 중심으로

이안소영_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1

gender cc
women for climate justice

왜 기후 정책에 젠더가 필요한가?(Gender CC)

- **여성과 남성은 기후 변화의 원인에 다르게 기여한다 :** 개별 탄소 발자국은 젠더 역할, 책임 및 정체성의 산물
- **여성과 남성은 기후 변화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받는다 :** 가족 관리 등 사회적으로 구성된 역할과 책임으로 여성은 기후변화 영향에 더 취약
- **여성과 남성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태도와 선호도가 다름**
  다른 사회 역할로 정책과 조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짐. 여성은 고위험 기술과 제한된 기술 접근법을 더 강력하게 거부하는 경향 있고, 생활 방식의 변화를 포함하여 보다 총체적 접근법을 선호
- **여성과 남성은 기후 정책과 조치에 따라 다른 영향을 받음**
  소득 불균형과 직업 선택과 같은 사회 경제적 요인 때문. 기후 정책은 보다 효과적이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젠더 인식하고 통합해야 함

2

조작된 '쓸모없음':자본주의적 가부장제 경제의 빙산 모델(미즈)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경제의 빙산 모델

- 모든 경제 이론과 모델에서 삶을 생산하고 생명을 보전하는 여성의 자급 노동은 '자유재', 즉 공기와 물과 햇빛 같은 공짜 자원으로 폄하됨
- 여성의 '가정주부화'는 남성의 프롤레타리화에 필수불가결한 보완물
- 숨겨진 경제, 비용의 외부화
- GNP 신화 비판하며, 자급적 관점(생계적 관점)Subsistence perspective 을 대안으로 제시

자료: 마리아 미즈, 반다나 시바(2000), 에코페미니즘

3

에코페미니스트 교차성에 대한 논의(J. Flavell)

- (젠더와 기후위기에 관한) 초기 공헌자들은 세계 정치,경제와 사회 내의 구조적 불평등이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한 여성의 취약성을 증가시킨다고 주장(Agrawala and Crick, 2009; Alston, 2013; Brody et al., 2008; Skinner, 2011).
- 교차적 접근법은 여성을 기후변화의 취약한 피해자로 규정하는 대신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인종, 국적, 건강, 성적 지향, 연령, 지역 등의 특성에 기반한 사회 구조가 개인과 집단의 책임, 취약성, 의사결정 권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 줌(GILL ALLWOOD, 2020 Mainstreaming Gender and Climate Change to Achieve a Just Transition to a Climate-Neutral Europe)
- Kings(2017)는 에코페미니스트들이 여성의 지배와 자연의 지배 사이의 상호 연결된 관계에 대한 질문과 씨름함으로써 수십 년 동안 에코페미니스트 교차성 작업을 '수행'해 왔다고 설명(MacGregor, 2017 참조). 에코페미니스트 프로젝트는 인간과 비인간에 대한 억압을 포괄하며, 동물과 자연 세계의 권리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켜 교차성에 대한 잠재적으로 풍부한 대화를 제공한다고 주장.
- 그러나 이 작업은 (비-에코페미니스트) 페미니즘 학문 내의 교차적 틀에 거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대부분의 환경 학문에서 교차 개념에 대한 관심 부족과 페미니즘 틀의 생태 문제에 대한 관심 부족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교차 분석은 본질적으로 매우 인간 중심적임.

인용: Joanna Flavell,2023, Mainstreaming Gender in Global Climate GovernanceWomen and Gender Constituency in the UNFCCC

4

기후위기와 퀴어 이론(그레타 가드)

- 젠더 문제에 무감한 기술-과학 관점이 현재의 기후변화 담론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퀴어 페미니즘의 입장은 이 담론에 진입하지 못하고, 아래의 두 흐름 사이를 횡단하고 있음.
  1) 자유주의 전략: 기후변화와 관련한 여성의 위험, 취약성 및 적응의 문제에 집중하는 주류화 모델 (WEDO)
  2) 문화페미니즘 전략: 가족과 환경을 돌보는 여성의 '고유한' 능력, 성역할에 기반한 위치 때문에 갖게 되는 여성의 '특수한 지식 ' 과 행위자성을 강조, 여성의 풀뿌리 리더십을 칭찬하는 것

➢ 두 전략 모두 '젠더'를 여성에 관한 연구로 한정하는 한계가 있음

- 발 플럼우드의 '지배를 옹호해온 마스터 모델 ' 로 인해 '후경화된' 기후위기의 근본적 원인 가시화하는 2개의 페미니즘의 중요성 강조
  1) 유물론적 페미니즘(Alaimo& Hekman 2008)/횡단신체성 개념 2) 페미니즘 동물연구

➢ 기후변화에 대한 유엔 논의에 여성을 더 많이 참여시키면 페미니즘 관점이 저절로 태동할까?: 더 광범위한 개혁 필요
➢ 퀴어 포스트휴머니즘과 '페미니즘 생태시민권'(MacGregor, 2014) 제안

인용: 그레타 가드, 김현미 외 역 (2024), 비판적 에코페미니즘

5

횡단신체성: 다종 간의 연결, 일상화된 화학물질과 플라스틱 위험

- 20세기 후반의 두드러진 운동: 환경정의운동, 환경보건운동
- [침묵의 봄] 레이첼 카슨, Silent Spring (1962) -〉 [말, 살, 흙] 스테이시 앨러이모,Bodily natures: Science, Environment, and the Material Self (2010) 로 이어지는 문제제기
- 자연과 생물학으로부터 달아나는 페미니즘 이론 : 섹스와 젠더 분리 속에 "사악한 자연" 전제되지는 않는지?
- 횡단신체성trans-corporeality : 인간이 언제나 인간을 넘어서는 세계와 맞물리는 지점
- 다양한 몸된 자연들 bodily natrures 사이의 상호교환과 상호연결이 드러남.
- 투과성 : 유방암, 노동자계급의 폐암, 화학물질복합과민증 등
- 포스트-남성 휴먼 환경윤리

돌봄과 기후위기의 교차성(WEN)

"우리 아이들이 누릴 자격이 있는 세상을 만들고 우리가 직면한 기후 위기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돌봄 노동을 처리하는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소수의 손에 엄청난 양의 부를 집중시키기 위해 지구와 사람들을 착취하는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아니라 치유를 중시하고 우선시하는 경제가 필요합니다. 돌봄 노동을 있는 그대로, 즉 인프라로 취급하고 이런 일자리와 노동자에 투자하여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WEN: 사회 인프라 투자는 사람에 대한 투자

- 대부분 교통, 주택, 건설, 생산시설 투자를 통해 어떻게 경제를 더 잘 성장시킬지 강조
  그러나 사람에 대한 투자 간과됨 –>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는 돌봄경제와 사람에 대한 투자 의미
- 우리는 삶의 어느 시점에서나 돌봄이 필요하고, 페미니스트 그린 뉴딜(Feminist Green New Deal)은 이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함
- 여성 예산 그룹(Women's Budget Group)의 연구에 따르면, GDP 2%를 돌봄 분야에 투자(예 : 사회 복지, 육아, 육아 휴직 및 보육 수준)하면 여성 일자리 2배 증가(같은 규모의 건설 투자를 통한 남성 일자리 증가보다 높음)
- 돌봄이 이미 저탄소 분야이고 돌봄에 대한 투자가 성 불평등을 다루는 데 핵심

– Care work is Climate work

https://www.wen.org.uk/2020/05/19/femgreennewdeal/ 7

Green and Caring Economy(WBG, WEN)

녹색 돌봄경제를 위한 네 가지 구조적 변화

- **경제의 방향성 전환하기**: 이익보다 복지를 우선시하기, 에너지 집약적이고 오염을 유발하는 산업에서 사람과 지구를 돌보는 활동으로 전환하기, GDP 성장을 주요 경제 목표로 삼는 것을 중단하기.
- **소유권 모델 바꾸기**: 자연자원 및 기본 서비스의 소유권을 민주화하기, 새로운 공공 재생 에너지 회사를 통해 에너지 시스템을 점검하기, 돌봄의 민영화에서 벗어나기, 공공 토지 매각 중단하기, 경제 전반에 걸쳐 대안적 소유 모델을 지원하기.
- **모금과 지출 방식을 바꾸기**: 물적 인프라 탈탄소화에 대한 공적 투자와 사회적 인프라 확장을 국가(영국)의 재정 및 통화 전략의 중심에 두고, 대상 보조금과 누진세로 뒷받침하기.
- **글로벌 녹색 돌봄경제 지지하기**: 부채 탕감, 성인지적 기후 금융, 국제 금융 기관 개혁, 조세 피난처 단속, 착취적 조약 폐지를 통해 기후 정의를 중심으로 세계 경제를 재편하기 위한 노력 강화하기

8

Feminist climate justice : A Framework for Action
(UN WOMEN, 2023)

❖ 페미니스트 기후정의의 차원과 원칙

Figure 1.1 DIMENSIONS AND PRINCIPLES OF FEMINIST CLIMATE JUSTICE

- 기후위기 시대의 젠더평등을 위해 '페미니스트 기후정의' 프레임 제안
- 낸시 프레이저 '인정'과 분배' 정의 이론을 적용하여 개발함

– 다양한 정체성, 경험 및 지식 형태에 대한 인식과 존중(여성의 무급노동, 전통적 지식)
– 자원 재분배(토지 등 커먼즈, 고용기회, 공공 재정)
– 기후 관련 의사결정에서 여성과 소외된 집단의 대표성 제고와 의미있는 참여

➢ 4가지 차원을 뒷받침하는 페미니스트 원칙: 상호의존성, 교차성

9

도시 기후 적응/ 완화 정책 위한 젠더 모니터링 툴
(Gender CC, Women for Climate Justice)

▪ 문제의식

– 젠더와 기후변화 간의 연관성 널리 인정되나, 성인지 대응정책을 개발, 구현하는 도시 지침은 거의 없음

–젠더 접근법은 대부분 취약성, 적응 집중되고 완화 정책 거의 없음

▪ 목표:

– 성별과 기후변화가 교차하는 다양한 방식을 세부적 수준에서 이해하도록 돕기

– 성인지적인 도시 기후 정책에 대한 옵션 이해하고 젠더 평가 기반으로 도시 정책 준비하는 데 정보 제공

▪ 방법론

– 완화 및 적응 정책의 젠더 민감성 조사

– 평가에는 제도적 설정 및 절차, 도시 기후 정책의 전체 범위, 기후변화에 대한 관련 도시 조치에 대한 성별영향 분석 등 포함

10

Gender Equality and Climate Policy Scorecard

- 배경: 환경정책 결정 분야에서 젠더 관점의 기후 행동 필요성 공감대 확산. 그러나 젠더 반응적인 기후행동이 정확히 무엇인지, 무엇을 수반하는지 명확성 부족
- 목적: 성평등을 국가 기후 정책에 통합하는 데 있어 국가의 진전을 평가하기 위한 글로벌 모니터링 도구 개발
- 개발 주체: 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IUCN) and the Kaschak Institute for Social Justice for Women and Girls at Binghamton University
- **정책 전 과정에 고려할 4가지 젠더 차원**
  - 여성의 목소리, 행위자성, 참여
  - 무급 돌봄노동(기후위기 맥락에서 여성의 돌봄 부담)
  - 젠더 기반 폭력과 차별(기후재난 전후 고려)
  - 여성의 경제적 안정(녹색전환 포함한 자원 접근성 향상)

https://genderandenvironment.org/gender-equality-and-climate-policy-scorecard/

11

기후정의는 젠더정의(여성환경연대)

https://listentoearth.campaignus.me/19

12

기후재난의 성별영향 드러내기: 정책제안집, 인터뷰, 강좌, 기고, 연구

- 경북 상주 언니네텃밭 여성농민
- 돌봄노동자
- 청소년퀴어활동가
- 제주 해녀
- 전업주부
- 폐기물선별장 선별원 여성
- 재난대피소의 여성

"(전에는) 겨울은 엄청 추웠던 기억인데 점점 수온이 따뜻해진다는 느낌. 저희가 종묘를 뿌리기도 하는데 기후변화로 생겨나는 수온의 온도변화로 인해서 해조류 전복 같은 것도 살아남지 못해요. 전에는 태풍 불면 동네 분들이 감태가 육상으로 올라와 채취했는데 이제는 본적이 없어요. 미역이나 천초도."
(월정리 해녀/40대)

13

[2021지구의날 에코페미니스트 선언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길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라!

- 정의로운 전환은 어디로 갔는가. 기후위기는 약탈적 자본과 정치의 위기이자 불평등의 결과이다. 우리는 지금의 이 위기를 단순히 탄소경제 문제로 축소하는 것에 반대한다. 기후위기가 수소와 재생가능에너지와 효율적인 거버넌스로 대체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어 더 많은 차와 더 많은 아파트를 부추기는 정치에 동의할 수 없다. 어느새 한국은 가장 많은 플라스틱과 시멘트와 에너지를 사용하고도 더 많은 우울과 자살, 더 많은 혐오와 폭력이 만연한 사회가 되고 있다. 이것이 진정 우리가 그토록 염원했던 행복과 풍요의 사회인가. 우리는 더 많은 평등과 민주주의만이 기후위기의 진정한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 우리는 석유와 석탄에 기반한 약탈적 경제를 전환하여 자급과 순환의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 전 세계의 식량을 만들어내고 인류를 돌보는 노동을 하는 이들과 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수천 킬로를 이동하는 상품이 아닌 지역에서 먹을거리를 자급하고 다국적기업으로부터 농업과 농촌을 지켜 생물다양성과 종자 주권을 잃지 말아야 한다. 암컷 동물의 재생산력을 지속적으로 착취하고 공장식 축산과 자연을 파괴하는 육식 중심의 식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생산-소비-폐기에 멈추지 않고 한정된 자원을 재사용하는 순환경제를 이루어야 한다. 도시를 위해 농촌과 지역을 희생시키지 말아야 한다. 기업의 성장과 이윤보다 우리의 공동체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돌봄과 공공성이다. 우리는 풍요와 충분을, 경제와 사회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

14

성평등 없이는 기후정의 없다 (11개 단체 공동선언)

1. 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하라.
2.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라.
3. 기후대응 정책 전반에서 젠더관점을 반영하라.
4. 여성·지역민 등 사회적 소수자가 주체가 되는 탈중앙집권적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하라
5. 젠더 관점의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한다.
6. 인간과 비인간 동물 모두가 공존하는 종평등한 사회로 전환하라.
7. 핵발전, 석탄발전 계획을 폐기하고 근본적인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하라.
8. 주거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하라.
9. 여성 농민·농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식량주권을 확보하라.
10.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이행하라

순환경제를 위한 노동은 없다: 선별원 경험 조사, 법 개정 노력

- 고령 여성, 이주노동자가 다수, 단순 노무직으로 분류되어 제대로 된 통계 없음
- 2018년,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65.8%는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잇따라 끼임·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중대재해법 적용 및 처벌이 불가한 상황
- 노동자 업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진마스크, 작업복, 안전화 등의 여성의 몸에 맞는 보호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16%에 달해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필수노동자법, 악취방지법 등 내용 반영되지 않음(법 개정안 연구)

16

공동연구 : 환경보건종합계획 성별영향평가 (2022)_ 기후 관련 예시

2020
환경보건종합계획
특정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부

현 행	개선(안) (이탤릭 부분)
ㅇ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재난 형태별 건강영향 취약지도 구축 - 환경재난 형태별 건강 연관성 평가로 건강영향 취약집단 지역 발굴 - RCP* 또는 SSP** 등 미래기후 시나리오에 따른 대책별, 지역별 건강영향 예측 * 대표농도경로 (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 공통사회 경제경로 (SSP,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ㅇ 기후변화를 고려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 기후변화에 따라 사용양상이 변화할 화학물질(살충제 등) 취급 방안, 환경 중 동태 변화를 고려한 배출 기준 조정 및 이상기후에 대비한 화학물질 보관체계 보강 등 ㅇ 기후변화 재난 취약지역 집단 중심의 지원 방안 마련 * 기존 건강관리 및 예방프로그램, 환경오염 취약지역 지원사업 추진시 기후변화 취약집단 등을 지원 우선순위로 고려	ㅇ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재난 형태별, *성별 연령별 등 차이를 고려한* 건강영향 취약지도 구축 - 환경재난 형태별 건강*(정신 건강 포함)* 연관성 평가 *시 성별 연령별 등 차이를 고려하여* 건강영향 취약집단 지역 발굴 - RCP* 또는 SSP** 등 미래기후 시나리오에 따른 대책별, 지역별 건강영향 예측 * 대표농도경로 (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 공통사회 경제경로 (SSP,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ㅇ 기후변화를 고려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 기후변화에 따라 사용양상이 변화할 화학물질(살충제 등) 취급 방안, 환경 중 동태 변화를 고려한 배출 기준 조정 및 이상기후에 대비한 화학물질 보관체계 보강 등 ㅇ 기후변화 재난 취약지역 집단 중심의 지원 방안 마련 * 기존 건강관리 및 예방프로그램, 환경오염 취약지역 지원사업 추진 *시 성별 연령별 등 차이를 고려한* 기후변화 취약집단 등을 지원 우선순위로 고려

18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여성환경운동 사례 조사(2024)

- 기후정의와 젠더정의가 어떻게 통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문헌 조사와 여성 그룹들의 활동을 통해 살펴보고, 이들이 제안하는 미래사회의 아젠다와 전환 논리 정책을 분석하고자 함
- 국내외 여성환경운동 및 정책사례 조사 분석을 통해 기후위기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성평등한 실천방안을 모색
- 사례조사 키워드: 기후위기대응운동, 제로웨이스트, 생태학적 농어업, 공동체/전환마을

한국 기후위기 대응의 젠더 주류화 증진방안 연구 : 시장 영역을 중심으로(2024)

- 주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과 젠더 주류화 현황을 파악하고 상호 연관성 조사하여, 시장 영역에서 성평등한 전환 모델 모색
- ESG 보고서 분석, 재생에너지 기업 사례 조사 및 여성 인터뷰

디종의 몸을 횡단하는 화학물질, 상호교환되는 위험

- 화학물질 규제와 감시: 지구와 여성의 몸에 건강한 "모두를 위한 월경" 운동, 생활 속 환경호르몬 조사, 유방암 캠페인, 이미용업 여성노동자 건강실태 조사
-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감축: 공공음수대 캠페인, 제로웨이스트 카페, 일회용컵 규제

19

기후정의와 젠더정의 실현을 위한 제안

❖기후변화와 젠더 관계는 크게 기후변화의 원인(gender causes) 2) 기후변화의 영향(gender impacts) 3)기후변화의 대응(gendered solutions)인식과 사회적 역할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함.

자료: 이정필.박진희(2010). 젠더 정의 관점에서 본 기후 변화 대응 정책. 한국환경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기존 기후위기와 젠더 담론의 한계를 어떻게 넘어설까?**

- 취약성 담론–〉 여성 내부의 차이 간과, 취약성 자체가 권력 불평등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간과함
- 자질과 덕목에서 우월 –〉 본질주의 위험 **(+ 인간의 보편적 덕목화)**
  - **취약성**(신체적/사회문화적/경제적 지위) –〉 여성의 즉각적 현실 고려/ 실질적 젠더 요구
  - **형평성**(기금/기술이전) –〉 기후변화 투자/기금/기술 이전의 형평성, 교육훈련 기회 등
  - **민주성**(참여) –〉 여성의 경험, 생태적 감수성, 행동 변화 유연성, 전략적 젠더 요구

자료: 김양희(2020). 기후위기와 젠더, 에코페미니즘

➢ **'기후정의 젠더정의'의 실현, 기후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 프레임워크에서도 이러한 3가지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반영하며, 정책 실행하고 모니터링해야**

20

기후정의 젠더정의 정책과 사회 구성의 방향

1. 젠더 불평등은 기후 변화 영향에 대한 취약성을 심화시키고, 결과적으로 힘들게 얻은 성평등의 결과를 위태롭게 한다.

- 기후위기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기후대응 정책과 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성별분리된 자료 수집과 젠더 관련 목표 설정, 정책 결정에서의 여성 대표성 강화, 사회 전반의 성평등 달성이 필요하다(시장, 정부, 시민 영역).

2. 페미니스트 기후정의는 지역, 직업, 세대, 연령, 젠더, 성적 지향,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교차성과 상호의존성에 기초한 기후대책과 사회전환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3. 또한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연과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무급노동의 가치를 재의미화하고, 이를 통해 현재의 성장과 발전 위주의 사회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전환과 대안책을 마련하는 것이 기후위기에 처한 지구와 다층적인 불평등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다.

-> 다종간의 연대, 탈성장 돌봄중심 사회, 기후돌봄 정치로 연결됨

21

기후위기x에코페미니즘 키워드 : 상호의존성, 교차성, 돌봄의 정치학

> 자본과 함께 잘 살기 위해
> 더 나은 임금 노동을 하려는
> 헛된 희망에 집착하는 대신,
> 자급의 조건과 수단을
> 우리 자신의 손안으로 되돌려야 한다.
>
> 336쪽

여성환경연대

➢ 소비중독 너머 자급, 인간중심주의 너머 다종간의 연대를 통한 탈성장 돌봄중심사회로 전환하기

- 도시와 경제와 노동의 재구성
- 돌보는 사람과 노동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돌봄혁명, 돌봄민주주의)

- 경제정의, 생물종정의, 재생산정의, 먹거리정의
  -> 자연'밖 ' 으로의 자유/필요가 아니라 자연 ' 안 ' 에서 자유/필요를 충족하는 모두를 위한 풍요로움 구축: 생계적 관점, 도넛경제

- 공유지(커먼스) 늘이고, 도시는 줄이기
- 로컬에서 자급할 방법 찾고, 연결하기
- 전환마을, 농생태학
- 생산/소비/폐기가 아니라 수리, 재생하기
- 임금노동시간 단축과 기본소득

-고맙습니다-

22

다종 간 관계성에 기반한 여성주의 생태시민성의 모색

김효정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전임연구원)

〈국문초록〉

기후위기는 현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전 지구적이고 피할 수 없으며 시급하게 대처해야 할 생태적 문제이다. 이 발표는 과연 기후위기는 누구의 위기이고, 누구의 책임인가 하는 질문을 통해 주류 기후위기 담론의 과학기술주의, 인간종 중심주의, 식민주의, 발전주의를 비판하는 데서 출발한다. 특히 신유물론 페미니즘과 교차하는 에코페미니즘을 중심으로 기후위기를 둘러싼 과학기술 중심의 담론을 해체하고 인간과 자연 간 관계를 새롭게 설정할 것을 요구한다. 본 연구는 에코페미니즘의 기후위기 탈식민화 이론과 신유물론 페미니즘의 기후-되기 논의를 검토하는 가운데 기후위기로 인한 여성의 피해자성 문제를 비판적으로 살펴본 후 과연 자연이 우리 사회의 공적인 주체가 될 수 있을지를 검토한다. 본 연구는 기후위기를 둘러싼 페미니즘 정치학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인간과 비인간의 얽히고 엮인 다종 간 관계성에 기반한 여성농민의 생태시민성 실천 사례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여성주의 시민성으로서 생태시민되기를 제안한다.

주제어 : 기후위기, 에코페미니즘, 여성주의 생태시민성, 다종 간 관계성

2024년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정기학술대회

다종 간 관계성에 기반한 여성주의 생태시민성의 모색

김신효정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기후위기와 인간종 중심주의

인간만이/인간을 위해 기후위기 해결?

- 인간이 자연을 통제한다는 말이 생물학과 철학의 네안데르탈 시대에 태어난 오만한 표현으로, 자연이 인간의 편의를 위해 존재한다는 의미로 이해(카슨, 2011: 29).
- 지구 표면적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숲은 인간이 만들어낸 이산화탄소의 25% 이상을 흡수(IPCC, 2022). 숲은 탄소적 가치만이 아니라 생물다양성, 토착적 문화, 생존권 등 다층적으로 연결됨.
- **자연을 통제하고 변형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적대적 대립과 갈등을 촉발. 기후변화에 대한 지배적인 인식으로서 자연을 탈정치화, 식민화하는 관점 초래.**
- 대안사회운동의 인간종 중심주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환경 문제에 있어서 여성과 소수자의 취약성과 구조적 불평등의 해결 어려움.

에코페미니즘

- **에코페미니즘은 가부장제로 인한 여성과 소수자 억압과 현대사회의 발전주의와 소비자본주의로 인한 자연 파괴가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페미니즘 이론이자 실천, 집합적 운동의 흐름** (김효정, 2023c).
- 에코페미니즘은 현재의 생태적 재앙이 서구 문화의 환경적 실패로 인해서 발생했고, **근대 서구철학이 갖는 여성과 남성, 자연과 문화에 대한 이원주의와 위계에 기인하고 있음을 지적**.
- 여성과 자연은 개발을 기다리는 상태가 아니며 여성은 인간으로 발전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님. 이러한 에코페미니즘의 생태적 혁명은 여성과 남성,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새로운 젠더 관계(Merchant, 1990: 100)가 형성되는 과정을 밝혀옴.

에코페미니즘

- 지금까지 인간의 지표는 남성, 서구, 백인, 자본가, 비장애인, 이성애자 중심이었고 이들은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많은 자본을 창출하기 위해 자연과 여성을 식민지화 해왔음. 특히 **자연과 여성에 대한 착취는 세계적 규모의 자본 축적을 가능하게 함**(미즈, 2014; 달라 코스따, 2020).

- **인간과 자연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는 기후변화를 비롯한 생태적 문제를 악화함.** 샌딜랜즈(Sandilands)는 에코페미니즘의 정치학이란 비인간 타자의 고유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인간과 비인간을 하나로 연결하는 세계이며,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 함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포함하는 급진민주주의라고 정의(Sandilands, 2000: 222-223).

- 에코페미니즘은 인간만이 아니라 다종 간 다양성과 수평적 연결성을 주장하며 생태적이고 참여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조. 인간과 생태라는 행위자 간 새로운 공존 관계를 모색.

비판적 에코페미니즘

- **여성개념에 대한 비판** : 여성은 단일한가?
- **본질주의에 대한 비판** : 여성과 자연은 연결된 존재인가?
- **자연개념에 대한 비판** : 자연은 변하지 않는 낭만적 존재인가?
- **문화와 발전에 대한 비판**
  : 서구/백인/이성애중심 문화와 따라잡기식 발전주의가 궁극적 목표인가?
-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 : 누가 행위자인가?
- **인구와 과학기술 문제에 대한 비판**
  : 인구감소와 과학기술발전이 해법인가?

비판적 에코페미니즘

- 그레타 가드 (Greta Gaard)
- 가드는 에코페미니즘의 **가부장제, 자본주의, 과학기술주의 비판에 더불어 탈식민주의, 교차성, 신유물론 페미니즘 및 포스트휴먼 페미니즘 담론에 기대어 비판적 에코페미니즘을 주창.**
- 비판적 에코페미니즘은 에코페미니즘의 여성과 자연 간 연결성에 대한 논의를 **젠더와 교차성 개념을 통해 새롭게 분석하고 인간 종과 자연이 맺는 구체적 관계성에 집중.**
- 자연에 대한 차별의 억압적 구조가 종 차별주의와 연결되기 때문에 인간도 하나의 종이자 자연과 문화 모두에 속한 존재로 **다종 간 윤리**를 통해 새롭게 정의 내려야 함.
- 여기서 종은 본질적이고 생물학적인 종이 아니라 변화하는 존재로서 종을 의미함.

기후위기로 인한 여성의 취약성과 피해자성을 넘어서

- **실제로 많은 통계들은 기후재난으로 인한 여성 취약성을 보여줌.** 전 지구적 기후위기의 문제가 젠더화 된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젠더 프레임이 여성, 특히 저개발 국가에 거주하는 비백인 여성을 주로 피해자로 묘사하는 문제**(Moosa and Tuana, 2014).
- 여성을 기후위기의 강요된 희생자로 묘사하는 프레임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사람들을 수동적이고 주체성이 없는 존재로 간주하는 문제가 있는 것. 여성이 기후재난에 더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을 기후변화의 주요 피해자로 분류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음(Arora-Jonsson, 2011).
-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젠더 및 부문 간 맥락의 복잡성을 인식하고 젠더 규범을 포함하는 문화적 차이들 속에서 대안을 형성하고 구성하는 과정 필요. 개인의 위치성이 갖는 취약성과 연결되며, 개개인의 취약성은 다시금 기후위기에 저항하는 집합적 실천과 돌봄으로 연결되기도 함.**

기후위기로 인한 여성의 취약성과 피해자성을 넘어서

- 김효정(2023)의 '여성농민운동의 생태적 전환과 다종 간 관계성 변화에 연구'를 살펴보면 여성농민들이 기후위기로 인해 겪는 생존권의 침해, 노동의 증가, 건강 위협 등에 대한 문제를 볼 수 있음. 여성농민들은 농사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저항적 실천으로서 더욱 생태적인 농업실천을 시도하고 있었고, 이들은 **대안농업 실천을 통해 흙, 땅, 종자, 작물 등 다종 간의 관계성을 구축하고 기후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물질들과 연결되는 가운데 새로운 주체되기의 과정**을 보이고 있음.

- 이렇듯 기후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여성농민들은 기후위기의 피해자로만 존재하지 않고 **기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행위자이자 저항자로 실천과 연대를 모색**하고 있었음.

- 이들은 **수동적인 존재로 기후위기에 피해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날씨에 상호 작용하면서 생태적 감각과 생태적 지식을 공동체 내에서 구축하고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대안구성**.

기후위기와 여성농민

- 여성농민은 기후위기 문제와 젠더 문제의 교차성으로 인해 다중의 억압과 차별

연구사례와 연구방법

- **여성주의 질적 연구방법: 참여관찰, 심층면접**
- 연구참여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언니네텃밭 상주공동체 여성농민생산자
- 1990년대 여성농민회 결성 이후 2009년부터 농생태학, 유기농, 로컬푸드등 대안농업운동 전개 및 제철꾸러미 사업 수행
- 현재 매주 200가구에 제철꾸러미 발송
- 목요장터, 상주로컬푸드협동조합 등 지역먹거리체계 형성에 참여

Y의 활동

여성농민운동의 생태적 전환과 다종 간 관계성의 변화

- 여성농민의 대안농업 실천에 있어서 **성별화된 자연과의 친밀성과 교감, 상호 작용을 영성이나 조화, 평화로 분석하거나 자연을 여성의 행위에 비유하는 문화적 해석은 본질주의 논쟁을 불러일으킴**. 본 연구는 인간과 생태와의 다종 간 관계성 변화를 실질적인 물질-되기의 과정.
- 여성농민들은 대안농업 실천을 통해 논과 밭에서 다종적 행위성의 변화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살로 느끼는 과정에서 물질의 변형을 이해할 수 있었음.
- 이러한 행위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일은 여성과 생태 간 친화성, 연결성, 영성을 강조하는 기존 연구의 논점을 **물질과 다종 관계성 논의로 옮겨가는 새로운 가능성 제시**
- 여성농민들은 대안농업의 순환 농법이란 기술과 노동의 투입을 통해서 흙과 땅, 미생물과 벌레와 같은 **다종 간 관계적 역동성을 발현시키기 위해 하나의 물질로서 행위**

여성농민운동의 생태적 전환과 다종 간 관계성의 변화

- 여성농민들은 기후위기 문제에 대안농업운동을 중단하기보다 자연과 생태의 행위성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는 생태적 농법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지식을 구축하기 위한 실험을 시도.**
- 결국 **생태적 농법은 인간의 노동이 하나의 물질로서 다종 간 관계성을 통해 작용하면서 작물이 스스로 더욱 적극적인 행위성을 발현하게 하는 함께-되기의 과정**
- 이러한 생태의 관계적 역동성은 촉매자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떠한 성별이든 간에 상관없이 인간이 하나의 물질로서 다른 물질들의 요구에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따름.**
- 여성이 남성에 비해 돌봄을 잘하고 돌봄에 맞는 성별이라는 돌봄의 여성화와 여성의 돌봄화와 같은 본질주의 비판에 있어서도 사실은 **성별에 상관없이 인간이 누군가를 돌보는 과정에서 축적되는 시간성과 체현의 물질성을 따라서 돌봄의 관계성과 기술이 달라짐.**

여성농민운동의 생태적 전환과 다종 간 관계성의 변화

• 오랜 농사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종 간 관계성에 기반한 새로운 생태지식을 구축. 이는 흙과 몸을 가로지르는 물질들의 내부작용에 대한 인식과 체현, 감각과 경험 속에서 발현

• 여성농민들은 **자신의 땅과 몸을 가로질러 구축한 생태지식이 초국적 담론과 언어라는 외부의 물질들과 연결되어 다시금 자신의 공동체와 지역의 현지화 된 농업 기술로 전환해 냄.**

• 여성농민들은 비아 깜페시나와의 초국적 연대 아래 여성농민운동의 생태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대안농업을 실천. 여성농민들은 대안농업 실천과정에서 흙, 땅, 종자, 작물과 같은 물질들과 다종 간 관계성을 새롭게 형성하는 동시에 이러한 관계성을 **다시 여성농민운동의 외연 확장으로 연결해 나가고 있었음.**

• **여성농민운동의 생태적 전환은 땅과 살을 가로질러 마을과 지역에서 여성농민 생산자이자 지역 내 먹거리 운동의 새로운 행위자로 가로지르는 가운데 기존의 가부장적 문화와 관습에 균열을 내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냄.**

자연, 시민성, 생태시민성

- 시민성은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시민의 변화하는 가치와 규범, 권리와 행동양식에 의해 발현되는 시민다움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되어 옴(조형, 2007).

- Mouffe(1992:225)는 시민성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우리가 어떠한 사회를 원하고 어떠한 정치적 공동체를 지향하는가와 연결 된다고 설명. 시민성 개념이 가부장제와 공사 이분법으로 인해 남성중심적이거나 성별중립적인 개념으로 다루어져 왔음을 비판(Voet, 1998:21)

- Gaard(2018)는 **비판적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인간중심의 여성주의 시민권은 다종 간 윤리로 통합되어 다시 쓰여야 한다고 주장.**
  인간과 인간 너머의 세계 간 새로운 윤리가 요구된다는 것임.

자연, 시민성, 생태시민성

- 시민성의 권리를 자연 중심의 권리로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
- Capra & Mattei(2019)는 생태와 관련한 인간 중심의 권리를 개인과 소유의 의미가 아닌 물, 공기, 동식물 등 비인간과의 관계에 관한 제도이자 자연과 공동체를 조율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것을 주장.
- **기존의 법체계나 제도에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인간 사회와 생태계의 공생을 모색하자는 것.**
- 인간의 소유물이자 자산으로 동물, 식물, 자연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와의 새로운 관계성에 기반해서 이들의 권리를 제도화**. (에콰도르와 볼리비아는 법에 자연의 권리를 도입하여 명시)

자연, 시민성, 생태시민성

- **2008년 에콰도르는 헌법에 자연권을 명문화**.
- 제71조 : 생명이 재창조되고 존재하는 곳인 자연 또는 파차마마(Pachamama; 안데스 원주민들에게 신앙의 대상인 영적 존재로 어머니 대지)는 존재와 생명의 순환과 구조, 기능 및 진화 과정을 유지하고 재생을 존중 받을 불가결한 권리를 가진다. 모든 개인과 공동체, 인민들과 민족은 당국에 청원을 통해 자연의 권리를 집행할 수 있다(박태현, 2019: 114).
- **헌법 제71조에 규정된 자연권은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모두 포괄함.**
- 볼리비아는 헌법 대신 법률로 자연에게 자연권 부여.
- **볼리비아의 경우 2010년 어머니 지구(Pachamama)의 권리에 관한 법을 통해 자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부와 국민의 책임을 규정.**
- 법문에 따르면 어머니 지구는 상호 연결되고 상호 의존적인 하나의 역동적인 생명 시스템으로 정의되는데, 이에 모든 개발의 생태영향평가, 사기업과 공기업의 생태 감사,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규제, 식량 자급, 물과 에너지 자급, 유기농에 대한 투자 등을 명시(Void, 2020: 241-244).

여성주의 생태시민성과 생태시민되기

- 맥그레고(Macgregor, 2006)는 기존의 생태시민성 개념이 여성주의적 인식론이 부재한 문제와 함께 다른 한편 생태여성주의 담론은 과도하게 여성의 경험에 의존하는 두 문제의 대안 개념으로서 여성주의 생태시민성 개념을 제안

- 맥그레고(Macgregor, 2006)는 비록 여성들이 환경 및 생태적 실천과 운동에 있어 보살피는 역할과 개입 사이에서 의미있는 연결을 만들어왔으나 **환경운동의 행위자로서 여성에 관한 말하기를 하는 것은 모성주의에 의존하지 않는 전략 요구.**

- **여성들의 생태적 실천을 단순히 주부의 일, 보살피는 모성으로 실천하는 환경 보호 행위가 아니라 생태적 책임과 권리의 시민적 실천으로 보아야 함.**

여성주의 생태시민성과 생태시민되기

- 여성주의 생태시민성이 실천 가능하기 위해선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생태환경과 시장, 국가와 협상할 수 있어야 하고 이들의 위치성을 재구조화하거나 재배치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가야 함.

- **생태시민이 되어간다는 것은 정치적 실천과 운동을 통해서 기존의 생태환경과 시장, 국가에 도전하는 가운데 이들과 관계 맺는 방식을 새롭게 재구성하면서 새로운 주체가 되어가는 과정임.**

- 여성농민의 경우에도 대안농업을 통한 여성농민운동 실천의 정치적 과정을 통해 생태시민이 되어간다는 것은 기존의 생태환경과 시장, 국가에 도전하는 가운데 이들과 관계 맺는 방식을 새롭게 재구성하면서 새로운 주체가 되어가는 과정임.

생태시민되기

- '생태시민되기'의 의미는 인간이 생태라는 물질의 체현과 내부 작용을 통해 생태와의 관계성이 변화하고 이러한 변화하는 관계성이 다층적으로 확장되는 정치적 과정. 특히 생태와의 관계성이 변화한다는 것은 생태라는 물질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간의 물질적 관계 맺음. 이는 인간이 생태라는 물질의 시간과 행위에 응답하는 주체가 되어가는 동시에 물질이 행위자가 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함(김효정, 2023c).

- **기후위기 시대 다종 간 관계성에 기반한 새로운 페미니즘 정치학으로서 생태시민되기는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성, 공동생성, 얽힘과 엮임의 세계에 대한 인식을 확장해주고 젠더 문제와 교차하는 기후위기 문제의 대안으로서 새로운 이론과 실천의 방향을 제안**(위와 동일).

결론을 대신하여

- 인간과 비인간들의 착취와 억압, 차별을 통한 생산주의와 발전주의를 넘어서 **삶의 생산과 재생산이 환경정의, 젠더정의로 연결되면서 새롭게 얽히고 엮일 수 있도록 생태시민성의 급진적 상상력과 실천이 긴급히 요청됨.**

- 새로운 시민사회운동의 방향성은 인간 중심의 제도, 문화, 규범, 가치를 변화시키는 운동을 넘어서 **인간중심주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환경문제에 있어서 여성과 소수자 뿐만 아니라 다종 간 관계성에 기반한 취약성과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

- **인간 너머의 세계가 고려된 에코페미니즘에 기반한 새로운 생태시민성의 출현과 생태시민권(김효정, 2022)에 대한 시민사회의 논의 확장 요청.**

참고문헌

- 그레타 가드(2024), 비판적 에코페미니즘, 김현미, 노고운, 박혜영, 이윤숙, 황선애 역, 서울: 창비.
- 김효정(2023a), 기후위기 시대 여성농민운동의 생태적 전환과 다종 간 관계성의 변화, 한국여성학, 39(2), 141-169.
- 김효정(2023b), 아시아 지역 시민사회 농촌개발협력을 통한 성평등과 생태시민성의 실천: 인도네시아 귀환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13(2). 83-117.
- 김효정(2023c). 기후위기의 페미니즘 정치학과 생태시민되기. 문화연구. 11(2). 33-62.
- 문순홍(2001), 한국의 여성환경운동: 그 역사 주체 그리고 운동유형들, 서울: 아르케.
- Gaard, Greta(2018), *Critical ecofeminism,* Washington DC: Lexington Books.
- Macgregor, S.(2006). B*eyond mothering earth: Ecological citizenship and the politics of care.* Vancouver: UBC Press.
- Mies, Maria and Vandana Shiva(2000), *Ecofeminism.* London: Zed books (손덕수·이난아 역. 2020. 에코페미니즘. 창작과 비평사).
- Mouffe, Chantal(1992), *Dimensions of Radical Democracy: Pluralism, Citizenship, Community.* New York: Verso.
- Plumwood, Val(1995), Has democracy failed ecology? An Ecofeminist perspective, *Environmental Politics,* 4(4), 134-168.
- Voet, Maria Christine Bernadetta(1998), *Feminism and Citizenship.* London; Thousand Oaks.

감사합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의 젠더 주류화와 심화 방향성에 대한 토론문>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 기본계획과 IPCC 보고서에서의 젠더 이슈

2024. 12. 13

안영환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2021년 9월 제정)

- ❖ 제7조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 국가비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
  - 국가비전 달성을 위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략(국가전략)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 ❖ 제8조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 중장기 국가 감축 목표: 2030년까지 부문별 연도별 감축목표
  - 5년마다 검토하여 변경하거나 재설정
- ❖ 제10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국가비전 및 중장기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5년마다 수립 및 시행

계획 작성 경과

- ❖ 목표의 숫자에 대한 작업은 기술작업반 수행
- ❖ 전반적인 계획 수립은 관계부처 협의체 진행 ➔ 탄녹위 심의
- ❖ 2023년 4월 제1차 국가 기본계획 확정

기술작업반 운영
-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 마련을 위해 전문가 기술작업반* 구성·운영('22.8월, 총 80회)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주관, 감축·흡수 10개 부문별로 연구기관, 전문가 등 참여

협의체 운영
- 부문별 · 연도별 감축목표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회의('22.9월~'23.2월)

분과위 운영
- 부문별 · 연도별 감축목표 마련을 위한 탄녹위 분과위 운영('23.1~2월)

의견수렴
- 탄녹위 주관, 부문별 · 연도별 감축목표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환·산업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 실시('22.11~, 총 20회), 환경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주관으로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도 병행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체계

중장기 감축목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2018) 727.6백만톤 → (2030) 436.6백만톤 배출

기본계획 10대 부문별 감축대책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산물
▪석탄발전 감축 ▪원전+재생e ▪수요 효율화	▪핵심기술 확보 ▪기업지원 ▪배출권 고도화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그린리모델링	▪무공해차 보급 ▪철도·항공·해운 저탄소화	▪저탄소 농업구조 전환 ▪어선·시설·저탄소화

폐기물	H_2 수소	흡수원	CCUS	국제감축
▪지속가능한 생산·소비체계 ▪자원의 순환 이용 확대	▪청정수소 공급 확대 ▪수소활용 생태계 강화	▪산림순환경영 ▪내륙·연안습지 복원·보호	▪법령, 저장소 등 인프라 마련 ▪기술 확보 상용화 R&D	▪민관활동 지원 플랫폼 ▪부문별 사업 발굴·이행

이행기반 강화대책: 적응대책 · 녹색성장 · 정의로운 전환 · 지역주도 · 인력양성 및 인식제고 · 국제협력

이행점검 및 환류: 협의체 범부처 상설 이행 협의체 운영 | 이행점검·환류 정량·정성지표 발굴 + 법정 점검·평가 체계 운영

정의로운 전환 방향 및 과제

1. 사회 전반에 정의로운 전환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는 환경조성
   - 탄소중립 녹색성장 관련 이해관계자(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업인,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참여
2. 산업전환 과정에서 산업·기업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
3. 맞춤형 훈련프로그램 제공 등 탄소중립·녹색성장 과정에서 고용 안정 강화
4. 지역 산업구조 전환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의로운 전환 추진
5. 농업인 및 어업인 등에 대한 선제적 지원 대책 마련

IPCC의 활동 경과

자료: IPCC

Mitig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의 방식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
  - ▪ 기후변화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생산·소비하고 토지를 사용하면서 만들어진 결과임
  - ▪ 기존 관행과 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발전에 대한 프레임을 근본적으로 재구성 필요
  - ▪ 지속가능한 전환은 사회적으로 평등하고 공정해야 함
- ❖ SDGs는 SD맥락에서 기후 행동의 시너지와 trade-off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 ❖ 대부분의 감축 행동이 시너지가 있지만, trade-off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일자리, 물, 식량, 에너지 제한, 토지 사용 제한, 생물다양성 등
- ❖ 일부 온실가스 감축수단과 성 평등은 시너지 효과 존재로 평가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 경제/환경/사회 측면의 다양한 지표를 포함하고 있어 종합적 목표이자 평가 지표

감축수단과 SDGs 관계 (Figure SPM.8)

❖ Urban land use and spatial planning, electrification of the urban sysgem, Integrating sectors, strategies and innvations과 시너지 관계

감축수단과 SDGs 관계 (Figure SPM.8)

에너지 보급과 젠더

탄소중립 주류화와 젠더 주류화

- ❖ 지속가능발전의 세가지 축: 경제, 사회, 환경
  - ▪ 정부에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존재
- ❖ 탄소중립의 주류화 심화 필요
- ❖ 적응의 주류화
- ❖ 기후변화와 젠더 주류화

감사합니다.

<에코페미니스트 기후위기대응 실천사례를 통해 본 '기후정의 젠더정의' 의미와 대안 모색> 토론문

2024. 12. 13.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1

총평과 토론·질문

❖ **총평**

- 발표자의 에코페미니스트 관점, 기후정의-젠더정의(페미니스트 기후정의, 교차성) 접근 방식, 그리고 페미니스트 그린뉴딜과 녹색돌봄 경제 제안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리고 여성환경연대의 활동을 지지하면서, 관련 논의를 진척하고자 몇몇 사례 및 쟁점을 통해 토론·질문거리를 나누려 함

❖ **토론·질문 요지**

1. 기후위기 대응은 합리주의 접근에서 가치 기반 접근으로 바꿔야 함(Perlaviciute, 2024). 발표자는 해외 주류 담론 지형을 자유주의 전략과 문화페미니즘 전략으로 (인용) 진단함. 국내 제도권, 학계, 시민사회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최근 어떤 변화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지, 발표자의 의견이 궁금함
2. 국내 주요 법률과 계획을 검토하면, 기후정의-젠더정의에 대한 접근(성인지, 젠더 민감성, 성별영향 등)은 부재하거나 미흡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토론문 슬라이드 4~7 참조). 그런데 최근 기후취약계층에 대한 제도화가 일부 진행되고 있음(토론문 슬라이드 6 참조). 이런 흐름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향후 대안적 방안은 무엇인지, 발표자의 의견이 궁금함
3. 최근 국내에서도 기후시민의회(Climate Citizens' Assembly)에 대한 사회운동적, 제도적 관심이 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입장이 표출되고 있음(토론문 슬라이드 8~9 참조). 기후정의-젠더정의 차원에서 이런 기후시민의회 형태의 공론 및 운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활용·개입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실행 조건이 무엇일지에 대해서도 궁금함

2

기후정의 & 젠더정의 현황(보충)

❖ **기후정의-젠더정의 주류화의 중요성**

- 유엔, 유럽, 몇몇 국가의 2030년 기후위기 대응 목표(NDC)에 대한 젠더 정의 평가 결과, 대부분 미흡
- 유럽 그린딜 등 녹색전환에서 젠더정의는 여전히 주류화되지 못하고 있음(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2023)
- 기후-젠더 관련 개별 정책 변화 이외에도 젠더 권력관계의 전환/변혁에도 주목해야 함(Allwood, 2023)
- Feminist Climate Justice: A Framework for Action(UN-Women, 2023) 중요성 재확인(UN-Women and DESA, 2024)

NDC의 Gender Equality 평가

자료: CARE International and Climate Action Network South Asia(2021)

The Gender Action Plan

자료: UNFCCC

3

탄소중립기본법의 개념과 시책

❖ **기후정의**

-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의 책임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부담과 녹색성장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어 사회적·경제적 및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

❖ **정의로운 전환**

-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

❖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등의 현황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사업전환 및 구조적 실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업의 발생 등 고용상태의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재교육, 재취업 및 전직 등을 지원하거나 생활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사업전환 지원, 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국민참여 보장 지원, 협동조합 활성화,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기후대응기금 등

➢ 탄소중립기본법상 젠더 관련 규정 부재
➢ 환경정책기본법(환경정의 개념 포함),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도 크게 다르지 않음

4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2023)

❖ 정의로운 전환

	추진 방향	주요 과제
1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제정 지원
		산업전환에 대응한 지역·산업별 고용영향 분석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이해관계자 참여
2	산업·기업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	산업 변화 전망과 연계한 선제적 종합지원 체계 구축
		중소기업 전환 촉진을 위한 시업전환 지원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을 활용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지원
		해운·항만물류 산업구조 전환 지원
		소상공인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
3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과정의 고용안정 지원	산업·일자리전환에 대응한 맞춤형 훈련프로그램 제공
		위기업종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4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의로운 전환 추진	지역산업 위기 대응 강화
		지역별 맞춤형 산업구조 전환 지원
5	기타 선제적 지원으로 정의로운 전환 실현	농업·농촌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
		어촌 어업인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

❖ 기후변화 적응

	추진 방향	주요 과제
1	과학기반 기후위기 감시·예측 및 적응정보 고도화	기후위험지도 구축을 통해 적응정보 고도화
2	기후재난 안전사회 실현	폭염·한파 취약성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3	기후위기를 극복한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	건강부문 기후위기 대응 체계 강화
4	모두가 함께하는 기후적응 추진	모든 적응주체 협업 강화 및 이행점검 내실화
		기후위기 취약계층 주거·생활공간 맞춤형 적응력 제고
		기후위기 보건복지 안전망 구축
		저소득·노인 등 취약계층 에너지 부담 경감

➢ 상위계획에 포함된 정의로운 전환의 방향과 과제는 대체로 미흡하며, 특히 젠더 접근은 부재함

5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2023)

	정책 과제	취약계층 대상
1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한파 영향예보 서비스 제공	건설분야 야외근로자, 배달·택배 분야 이동근로자, 농촌어르신, 독거노인·장애인, 외국인 등
2	폭염·한파 건강피해 예방 인프라 강화	쪽방촌 거주자, 저소득층 노인
3	폭염·한파 내비 종합대책 수립·추진	폭염 3대 취약분야(논·밭 작업자, 건설현장 등 야외작업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한파 취약계층(홀몸어르신, 노숙인, 쪽방촌 주민 등)
4	온열·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임신부 등
5	폭염·한파 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	기후변화 취약계층(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및 이용시설(경로당 등)
6	기후보건영향평가 운영 체계 확립	노인,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
7	재해취약 주택 대상 공공·민간임대 이주지원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8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中 더위·추위민감계층(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질환자 및 한부모·소년소녀가정 등)
9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사업	에너지 소외계층(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

✓ 환경부,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중점관리지역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2024~2027)

✓ 환경부,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2021~)

1) 취약가구·시설 차열페인트 도장사업, 2) 결빙 취약지 개선사업, 3) 야외근로자 이동식 폭염쉼터 설치사업, 4) 폭염대응 쉼터 조성사업, 5) 녹색공간 조성사업, 6) 물순환 회복사업, 7) 소규모 공장 주변지역 적응인프라 조성사업 등

➢ 각종 사건 사고 발생으로 적응 정책 대상화 일부 진행 중, 그러나 이런 접근 방식에 대한 종합적 평가 및 대안 제시는 찾아보기 어려움

6

제1차 시도별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2024)

시도	정의로운 전환
강원	지역기반 정의로운 전환(탄광지역개발 추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경기	정의로운 전환 추진 기반 구축과 강화(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정의로운 전환 플랫폼 구축과 운영,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립), 지역과 산업전환 대응(탄소중립 산업·고용 영향 실태조사 및 DB 구축,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시군별 사회적 대화 촉진과 지원, 중소기업 전환 촉진을 위한 사업전환 지원, 협동조합 활성화 및 소상공인 정의로운 전환 지원)
경남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등 정부 사업을 활용한 지원 활성화, 정의로운 전환 지원계획 수립 추진 및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경북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지역 기반 산업별 정의로운 전환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 농어업인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 미래자동차 사업재편 혁신성장 지원사업, 미래차 부품 기술융합 지원사업
전남	에너지·전환 부문(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강화 등), 산업부문(탄소중립 산업영향 실태조사, 노사민정 탄소중립 협의체 운영 등), 농어업부문(이익공유 활성화 등), 고용·노동부문(6대 정책영역별 공정한 고용·노동전환 실천계획 수립 등), 정의로운 탄소중립 추진 기반 구축
전북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탄소중립 거버넌스 체계
충남	도민이 공감하는 충남형 정의로운 전환(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산업별 정의로운 전환 실태조사, 산업별 일자리 지원 강화, 정의로운 전환의 거버넌스 체계화, 고탄소산업 전환지원 프로젝트)
충북	정의로운 전환과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 전환 지원
제주	이해관계자 대상 지원체계 구축
광주	능동적 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지역기반 정의로운 전환 지원, 전환과정에서의 일자리 창출, 탄소중립 미래기술 지원 및 인재 육성)
대구	미래차 부품소재 혁신인재 양성사업, 직업능력 개발 및 채용연계, 청년 디지털전환 혁신 일자리 사업
대전	정의로운 전환 교육, 재래 농업에서 첨단 농업으로의 전환, 에너지 소외지역 개선
부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산업·기업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
서울	에너지 플러스 확대 및 개선, 화석연료 관련 산업 전환 지원 및 고용 안정성 확보
세종	탄소중립 전환 영향 집단 지원(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 구축 및 감축 실태조사)
울산	친환경차 생산기술 향상 및 기업지원, 정의로운 협의체 구성과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인천	지역 맞춤형 정의로운 전환 추진체계 구축, 선업 및 기업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

➢ 국가계획과 마찬가지로 광역계획의 정의로운 전환의 방향과 과제도 미흡하며, 특히 젠더 접근은 부재함

7

기후시민의회 모델과 사례

❖ **시민의회 모델**

- 제도 변화, 헌법 개정, 정치적·사회적 균열 등을 해결할 필요성
- 캐나다 BC(2004년)와 온타리오(2006년)의 선거제도 개혁
- 이일랜드의 동성결혼과 낙태 이슈 5개 주제(2016~2018년, Citizens' Assembly)
-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 대응으로 French Citizens' Convention on Climate(19~20년)

자료: OECD(2020); IEA(2021); OECD(2024)

❖ **기후시민의회의 주요 특징과 분석틀**

구분	주요 내용
정치적 맥락	의회 조직화를 이끈 사회적, 정치적 요인은 무엇인가?
주최/주관	어떤 기관이 의회를 운영하는가?
규모/스케일	의회 참여자는 몇 명이고, 운영 기간은 얼마인가?
선정 방식	의회 참여자의 구성은 얼마나 다양한가?
의회 역할	의회의 임무는 무엇인가?
거버넌스	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얼마나 독립적, 협력적으로 진행되는가?
운영 프로그램	의회의 세부 프로그램은 어떻게 기획되고 운영되는가?
토론 촉진	퍼실리테이터와 전문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소통과 대중 참여	의회 참여자 이외 폭넓은 대중의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고와 권고	의회의 결정사항은 어떻게 제출되는가?
제도적 반응	주최/주관 기관은 의회 결정/합의사항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점검 및 평가	의회 구성/운영의 경과와 결과에 조사 및 평가는 어떠한가?

자료: Smith(2024), KNOCK-GLOCAL

8

기후시민의회를 꿈꾸는 동상이몽 ?

❖ 청소년기후행동, 기후시민의회 제안 퍼포먼스(2021.9.24) 시민의회 입법추진 100인 위원회 출범(2024.5.8)

자료: 민들레(2024.5.15); 시민의회 국제 심포지엄 자료집

✓ 정정화, 국민주도 개헌과 정치개혁, '시민의회'로 돌파하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2024.2.5.

✓ 양승원, 시민의회 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2024.7.29.

9

감사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10

"다종 간 관계성에 기반한 여성주의 생태시민성의 모색"에 대한 토론문

이상은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제 진단

- 사회정책학의 영역에서 기후위기에 따른 사회위험들을 바라보는 입장
  - 기후위기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결과이고 개인 차원에서 대응 어려움
  - 기후위기는 산업화에 따른 사회위험들에 비해 덜 가시적, 더 복잡하고, 더 모호, 더 예측불가능, 취약층(계층 및 지역)에 더 큰 위험 야기.
- 에코 페미니즘
  - 지구상에서 지배집단에 의한 피지배집단의 대상화와 착취에 의해 기후위기 발생했다는 측면 강조
    - 가부장제하에서 남성에 의한 여성 대상화와 착취
    - 인간에 의한 자연(흙, 물, 다른 생물 종들) 대상화와 착취
  - 남성 종 중심주의를 탈피하여, 여성과 모든 다른 종들과의 평등과 조화 추구에 의해 기후문제 해소 가능

- 기후위기 논의에서의 에코페미니즘의 의의
  - 한 종(인간 그 중에서도 남성)에 의한 다른 모든 종들에 대한 대상화와 착취가 기후위기 야기했다는 문제 제기
  -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의 주체적 활동을 통한 다종간 평등성의 회복 필요성을 제시
- 비판
  - 남성중심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후위기 발생했다는 점에서 연관성 문제를 제기. 그러나 인과관계 측면에서 보다 더 엄밀한 분석이 필요
    - 여성은 양면적 지위 가짐.
      -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에 의한 피착취집단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 동시에 인간종의 일부로서 타 종에 대한 착취에 동참한 성격
    - 남성중심사회와 기후위기 간의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다른 제3의 요인들의 중요성. 예) 인간 욕망

대안적 실천활동

- 여성이 남성주도 자본주의에 따른 기후위기의 피해자를 넘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주체로서 역할
- 발표문에서 제시된 주요 실천활동
  - 여성 농민의 생태적 농법에 의한 대안적 농업 활동
    - 다종간 관계성 구축
    -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적 감각과 지식을 공동체내에서 구축·공유
  - 저출산 지지(?)

- 평가
  - 여성의 기후대응 실천활동과 그 효과에 대한 보다 구체적 예들의 제시가 필요
  - 여성 농민의 예는 너무 제한적.
    - 도시화된 현대 사회에서 농민의 규모는 매우 제한적.
      - 선진국들의 경우 대체로 취업자의 2-5%.
      - 그 중 여성 농민들의 규모는 더욱 작음.
  - 대부분의 여성들은 도시 거주하고 경제활동참여.
    - 여성 활동의 중심은 도시거주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제기될 필요.

생태 시민성 정치

- 민주주의 정치체제하에서 시민들의 환경정책에 대한 지지 중요
- 시민들의 녹색성장 정책과 탈성장/탈소비 정책에 대한 지지 간에는 상당한 차이
  - 녹색성장 정책은 과학기술에 기반하여 성장과 환경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정책
    - 현대 사회에서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지지는 높음
  - 탈성장/탈소비 정책은 성장과 소비를 억제하고 생태주의적 사회를 구축하려는 시도
    - 현대 사회에서 탈성장/탈소비 정책에 대한 지지는 낮은 편
    - 예) 스웨덴 2020년 사회조사 결과
      - 보편적 기본소득이나 무상식료품제공에 대해 반대가 높음
      - 소득과 부의 소유에 상한을 설정하는 최고소득이나 최고재산 규제에 대해 반대가 높음.
      - 생태친화적이지 않은 개인 생활방식에 대한 규제(육류소비 과세, 연간 항공이용회수 제한, 개인별 생활공간 제한 등)에 대해 압도적 반대

-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정책으로 탈성장/탈소비 정책 추진은 어려움
  - 탈성장/탈소비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가 낮은 상황에서,
  - 민주주의 정치체제하에서 국가가 개인과 집단의 생산 및 소비 활동들을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
  - 권위주의 정치체제하에서만 이러한 강제가 가능할 것.
    - 이러한 측면에서는 급진민주주의보다는 권위적 정치활동과 관련성
- 따라서 시민들의 지지 없는 탈성장/탈소비 정책은 곤란.
  - 탈성장/탈소비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중요.
  - 하지만 이 또한 권위주의적 지도의 방식이 될 가능성.
- 그러므로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을 통한 기후위기 인식 확산과 탈성장/탈소비 실천 활동의 확산이 중요

- 대안적 활동방향들의 동시적 추구
  - 세가지의 주요 활동방향
    - 적응으로서의 활동
    - 녹색성장으로서의 기후대응 활동
    - 탈성장/탈소비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의 실천활동
  - 시대별 단계적 초점 변화 필요
- 이 활동들의 주체로서의 여성의 역할 모색
  - 젠더 평등적 시민으로서의 활동

감사합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RESEARCH INSTITUTE OF ASIAN WOMEN

학술지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4종을 매년 발간합니다. 각 연구분야의 전문가,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연구원 소개

연구·학술
젠더와 다문화 관련 기초연구 및 융합연구를 주도한다.

교육·사업
성평등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세계시민을 양성한다.

RIAW 비전

학술지
젠더와 다문화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출판물을 발행한다.

본교
세계 최고 여성대학인 숙명여대의 정체성과 가치를 발굴하고 확산한다.

SSCI, SCOPUS, KCI 등재 학술지

「Asian Women」

KCI 등재 학술지

「OMNES」

「아시아여성연구」

「다문화사회연구」

Asian Women | 소개

ISSN : 1225-925X (Print) / ISSN : 2586-5714 (Online)

Submission

Current Issue

Webpage

About the Journal

Asian Women would like to cordially invite papers on recent gender issues such as women and welfare, women's rights, eco-feminism, health, women and bio-technology, women and history, gender relations studies, and other relevant topics in gender studies.
Asian Women is an interdisciplinary and cross-cultural journal, which is published in the Research Institute of Asian Women a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orea.
It has been published quarterly: in March, June, September, and December.
It is indexed and abstracted in the Social Science Citation (SSCI), SCOPUS, and the Korea Citation Index (KCI).

Guides for Authors

| Topics for general issues may include |
- Representation of gender on the digital media
- Sexuality, gender identity
- Feminist or anti-feminist activism in the global as well as in Asia
- Women's participation in environment issues
- Sexual harassment or violence against women
- Youth culture and gender on the platform
- Keen interest in the issues of science, technology, education, and gender

| General Format |
- Article: 25 pages (A4, 6000-7000 words, double-spaced) in its total length
- Book review: 3-5 pages (A4, 800-1000 words, double-spaced)

| Submission |
- Manuscripts should be submitted electronically to the submission system of Asian Women from dbpiaone.com/riaw, and all files should be the Ms word format
- Submissions are accepted year around

| Contact |
- asianfem2@sookmyung.ac.kr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e-asianwomen.org

RESEARCH INSTITUTE OF ASIAN WOMEN

OMNES :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 소개

ISSN: 2093-5498 (Print) / 2671-969X (Online)

Submission

Current Issue

Webpage

About the Journal

OMNES, meaning "everyone" in Latin, is a peer-reviewed biannual publication. We welcome manuscripts that deal with themes concerning the global movement of people, human security related to migration, multicultural or multiracial society, cultural diversity, refugees, social integration, nationalism, culture, identity, civil rights and other relevant topics. We are seeking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in the area of politics, economy, society, culture, language, literature, history, philosophy, and the arts. OMNES publishes rigorous theoretical or empirical research papers, review articles, book reviews. The editors invite submissions from researchers in all fields of social science and humanities. OMNES is indexed and abstracted in the Korea Citation Index (KCI) as of 2016.

Guides for Authors

| Topics for general issues may include |
- Human security related to migration
- Multicultural or multiracial society, cultural diversity, refugees, social integration
- Nationalism, culture, identity, civil rights and other relevant topics

| General Format |
- Article: 25 pages(A4, 6000-7000 words, double-spaced) in its total length
- Book review: 3-5pages(A4, 800-1000 words, double-spaced)

| Submission |
- Manuscripts should be submitted electronically to the submission system of omnes from dbpiaone.com/riaw, and all files should be the MS word format

| Contact |
- omnes@sookmyung.ac.kr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omnesjournal.kr

Research Institute of Asian Women | Editorial Board of OMNES
TEL. +82-2-2077-7037 E-MAIL. omnes@sookmyung.ac.kr

OMNES :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 소개

KCI 등재학술지

온라인 투고

최신호 보기

홈페이지

학술지 소개

OMNES(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는 영문 학술지로 2010년 이래 연 2회 발간되고 있으며, 2016년에 한국연구재단(KCI) 등재 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학술지는 전(全) 지구적 이주, 다민족·다문화사회, 사회적 다양성, 난민, 인간안보, 인권, 사회통합, 민족·민족주의, 문화, 정체성, 시민권 등의 이슈, 그리고 이와 관련된 동북아 및 세계평화를 주제로 논의한 연구를 지향하며, 세계 각지의 연구자들과 활동가들에게 다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시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원고모집안내

| 공모 분야 | 다문화와 관련된 전 학문 분야의 주제

| 논문 투고 자격 | 자격 제한 없음

| 원고 분량 |
- 논문 : 6000자 ~ 10000자 이내 (word 파일)
- 논문 형식 : The 6th edition of the APA Style

| 원고 제출 마감 |
- 2024년 12월 31일 (화) (*저널 발간 예정 : 2025년 1월 31일 (금))

| 제출 방법 |
- 투고시스템 (dbpiaone.com/riaw)

| 제출 서류 |
- 저자 정보를 제외한 논문
- 저자 체크리스트, 표절검사서(10%미만)

| 게재료 |
- 논문 게재료 : 일반논문 - 200,000원 / 연구비수혜논문 - 300,000원
  (분량 초과 시 금액 추가)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 omnes 편집위원회
문의 : TEL. 02-2077-7037 E-MAIL. omnes@sookmyung.ac.kr

아시아여성연구 | 소개

KCI 등재학술지

온라인 투고

최신호 보기

홈페이지

학술지 소개

아시아여성연구(The Journal of Asian Women)는 아시아여성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여성학 전문 국문 학술지로서 1962년 창간호가 간행된 이래 매년 발간되는 정기적인 학술논문집 입니다. 2003년에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되었고, 2006년에 등재지로 격상되었으며, 이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 학술지는 국내 여성학 연구를 선도하는 학술지로서 모든 학문 분야별 여성 관련 현안 및 문제, 여성주의 및 여성학 연구 등 성평등에 기여하는 내용의 논문을 호당 7~10편씩 싣고 있습니다. 아시아여성연구는 2019년부터 연 2회 에서 연 3회로 발간 횟수가 증간되었습니다. 인쇄본과 온라인으로 매년 4월 30일, 8월 30일, 12월 30일 출간되오니 여성학 관련 연구 분야의 연구자들 많은 관심바랍니다.

원고모집안내

| 공모 분야 | 여성학 관련 학술 분야

| 논문 투고 자격 | 자격 제한 없음

| 원고 분량 |
- 논문 : A4용지 20매 내외/ 최대 원고지 A4용지 25매 미만
- 서평 : A4용지 4-5매 내외

| 원고 제출 마감 |
- 2025년 2월 15일 (토) (*저널 발간 예정 : 2025년 4월 30일 (수))

| 제출 방법 |
- https://asianfem.jams.or.kr 접속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 논문제출 → 아시아여성연구 선택

| 제출 서류 |
- 논문투고신청서 및 저작권이양동의서 (첨부파일 참고, 서명 필수)
- 논문유사도 검사지 (10%미만, jams 투고시스템 내 [첨부파일]란에 탑재)

| 게재료 및 원고료 |
- 논문 심사료 : 60,000원
- 데스크리뷰 이후 접수 완료 후 발송되는 납부 안내 메일에 따라 납부
- 논문 게재료 : 일반논문 - 200,000원 / 연구비수혜논문 - 300,000원 (분량 초과 시 금액 추가)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 아시아여성연구 편집위원회
문의 : TEL. 02-710-9177 E-MAIL. asianfem@sookmyung.ac.kr

다문화사회연구 | 소개

KCI 등재학술지

학술지 소개

다문화사회연구(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는 아시아여성연구원 다문화통합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국문학술지로서 2008년 8월 첫 호가 발간되었으며, 2016년도에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전(全) 지구적인 이주, 다민족·다문화사회, 사회적 다양성 이슈와 연관된 논문을 싣고 있으며, 2019년부터 연 3회, 매년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0일 출간됩니다. 다문화 관련 연구 분야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과 소중한 투고 바랍니다.

원고모집안내

| 공모 분야 | 다문화 관련 학술 분야

| 논문 투고 자격 | 자격 제한 없음

| 원고 분량 |
- 논문 : A4용지 20매 내외/ 최대 원고지 A4용지 25매 미만
- 서평 : A4용지 4-5매 내외

| 원고 제출 마감 |
- 2024년 12월 23일 (월) (*저널 발간 예정 : 2025년 2월 28일 (금))

| 제출 방법 |
- https://asianfem.jams.or.kr 접속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 논문제출 → 다문화사회연구 선택

| 제출 서류 |
- 논문투고신청서 및 저작권이양동의서 (첨부파일 참고, 서명 필수)
- 논문유사도 검사지 (10%미만, jams 투고시스템 내 [첨부파일]란에 탑재)

| 게재료 및 원고료 |
- 논문 심사료 : 60,000원
- 데스크리뷰 이후 접수 완료 후 발송되는 납부 안내 메일에 따라 납부
- 논문 게재료 : 일반논문 - 200,000원 / 연구비수혜논문 - 300,000원 (분량 초과 시 금액 추가)

온라인 투고

최신호 보기

홈페이지